

SPECIAL THEME: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예술과
춤

만남



CONTENTS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5년 06+07월
통권 173호
ISSN 2234-5949

SPECIAL

- 06 VIEW
노래의 의미를 되짚어 보다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감상 포인트
- 10 THEME
“살아야지, 그러니 더 노래 불러야지”
빛이 된 노래들의 하모니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작업 노트
- 16 INTERVIEW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이제 막 봄의 한가운데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STAGE

- 20 PREVIEW
① 다시 만난 청년들의 빛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
2025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 ② 8월의 여름밤, 소나기처럼 스며드는 고전 문학과 음악의 만남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
- ③ 경기민요의 정수가 궁금하다면
<2025 경기소리 -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8 REVIEW
① 동시대성을 갖춘 한국무용으로 그려낸 경양의 미덕
경기도무용단 <5049: 허공에 날린 화살>
- ② 낯설지만 용감한 투쟁, 신비롭고 유쾌한 모험
경기도극단 <단명소녀 투쟁기>
- ③ 투쟁과 극복, 환희의 서사가 보여주는 그 '기세'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I <투쟁, 극복, 환희>

INSIGHT

- 38 ART AND THE CITY
리움, 시간이 포개진 도시 위에서
- 44 ATTRACTION
한일 공연 문화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공연의 앞날
- 50 ARTIST TALK
나는 '멈추지 않는' 무용수
경기도무용단 이채연
- 나는 '평범함의 특별함을 아는' 배우
경기도극단 이윤
- 54 ON & OFF
SNS에서 세계로, 견고한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예술가들
- 56 ART SCENE
지적 허영: '트렌드'와 '태도' 사이

GGAC STORY

- 60 ZOOM IN
그들이 함께 만드는 감동의 모양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 한혜지 대리, 박준영 주임
- 64 GGAC NEWS
- 66 CALENDAR
- 68 EPILOGUE

발행일 2025년 7월 16일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김상희
편집 팀장 윤준오
편집 담당 박선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5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디자인 문화공감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만남



MINI INTERVIEW

“이번 공연의 제목 앞에는 ‘교향적 칸타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분명 국악을 담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작곡가, 연주자들이 지닌 풍부한 정서를 보여주고 싶어요. 국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클래식의 섬세함을 찾는 분들에게도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의 기반이 된 옛 노래들은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였기에 가능한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인만의 뜨거운 감정이 공유되길 기대합니다.”

SPECIAL



VIEW

노래의 의미를 되짚어 보다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감상 포인트

THEME

“살아야지, 그러니 더 노래 불러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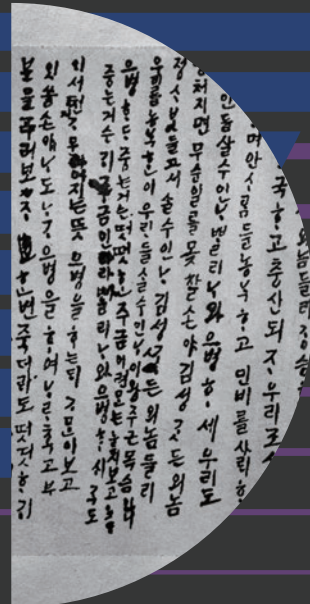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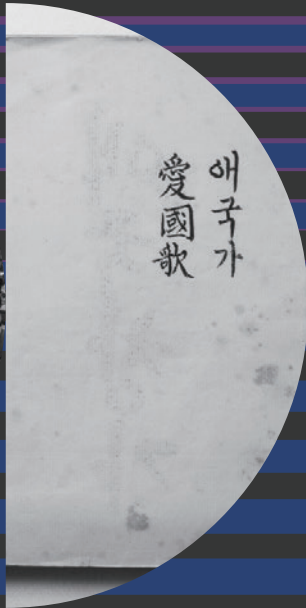
빛이 된 노래들의 하모니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작업 노트

INTERVIEW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이제 막 봄의 한가운데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2344

문의
031-289-6472~5

5세(2020년생) 이상
관람가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세계초연 이신우 작곡

2025. 8. 23. 토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노래의 의미를 되짚어 보다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감상 포인트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밝혀내고 있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빛이 된 노래>를 통해 우리 역사와 함께한 노래들을 한데 모으고 엮었다. 민족의 마음을 달랜 노래들에 주목할 좋은 기회다. 이 공연의 주요 감상 포인트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글. 박선우(경기아트센터 커뮤니케이션팀)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감상 포인트 1: 민족의 마음을 달랜 노래에 주목하는 시간

‘가곡,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 또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는 뜻을 지닌 노래는 그 기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 노래가 함께했다는 사실이다. 즉, 노래는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그러한데 당시 나라 잃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노래는 쓰라림을 달래는 약이자 독립의 의지를 타오르게 하는 장작으로 더 가까이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이를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안사람 의병가>, <점진가>로 대표되는 계몽가요, <독립군가>, <격검가>를 비롯한 항일음악 등 다양한 노래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밝혀내고 있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빛이 된 노래>를 통해 우리 역사와 함께한 노래들을 한데 모으고 엮었다. 민족의 마음을 달랜 노래들을 만날 좋은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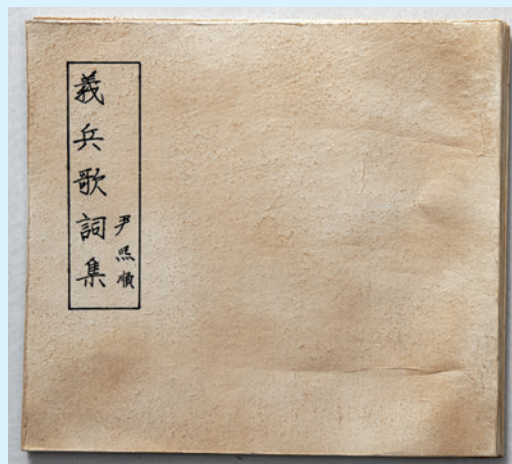
감상 포인트 2: 노랫가락에 담긴 희망, 그리고 우리의 얼 읽기

<빛이 된 노래>에서 관객은 노래에 담긴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독립 운동가 윤희순이 작사한 <병정가>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다.

“원수 같은 왜놈들아 너희놈들 잡아다가 살을 갈고 뼈를 갈아 조상님께 분을 푸세. 우리 의병 물려서라, 만세 만세 의병 만세 만만세요.”

이렇듯 우리 민족은 노래를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다졌다. 당시 우리 민족이 불렀던 <격검가>, <광복군가 1>을 비롯한 작자 미상의 노래들에도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다. 관객은 이번 공연 <빛이 된 노래>를 통해 이처럼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 정신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들과 만날 수 있다.

노래에는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과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도 담겼지만, 어두운 시대에도 저버릴 수 없는 희망 또한 담겨 있다. 경쾌하고 신나는 장단이 주요 특징인 경상도 민요 <괘치나 칭칭 나네>와 우리 민족의 낙천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강강술래>, 도탄에 빠진 동포와 형제에 대한 절절한



윤희순의 『의병가사집』(출처: 의암류인석기념관)

마음과 더불어 독립에 대한 단호한 희망을 드러내는 <압록강 행진곡> 등에서는 꺾이지 않는 생명력, 아니 '꺾을 수 없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은 노래에 담긴 그 생명력, 나아가 뜨겁게 타오르는 희망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노래는 우리 민족의 얼 또한 품어낸다. 이번 공연의 작곡을 맡은 이신우 작곡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거국가>, <한반도> 가사 일부를 차용해 국악 관현악의 선율로써 묵직한 감동을 안길 것이라고 말한다. 1910년 4월 도산 선생이 망명하기 전, 조국에 대한 절절한 심정을 담아 가사를 지은 <거국가>, 우리 강산에 대한 깊은 마음을 담은 <한반도>는 오늘날 관객에게 어려웠던 시기에도 나라를 위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얼을 비장하게 전한다. 이신우 작곡가는 이와 함께 <빛이 된 노래>를 관통하며 감싸는 곡으로 <아리랑>을 강조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아리랑>은 고통을 '품위'로, 절망을 '빛'으로 승화시키는 노래로 존재했다. 우리 민족 곁에서 울고 웃으며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노래이기에 <빛이 된 노래>에서 <아리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오늘날 관객에게 <아리랑>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기대해 볼 법하다.



이신우 작곡가(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앙상블 'The Pathway' 예술감독)

감상 포인트 3: 잃어버린 노래들을 꺼내고 엮어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노래들을 모으고 엮은 이번 공연의 또 하나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있다. 바로 잃어버린 노래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근대 음악사에는 <경부철도노래(이후 '경부 철도가'로 알려짐)> 같은 번안곡이나 <우리 주 가까이>로 대표되는 찬송가 같은 노래들이 많았다. 이는 개항 이후 유입된 서양음악의 영향이 크다.²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불린 계몽가요 또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행했다. 기존의 익숙한 민요, 일본식 창가, 찬송가 등에 배움, 체력 강화, 봉건 타파, 애국, 충절, 항일, 독립, 단결 등을 주제로 가사를 바꿔 부른 경우다. 더러 우리나라 작곡가가 직접 만든 노래들도 있었다. 이러한 계몽가요는 역사적 수난을 노래 운동으로 극복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³ 그 밖에 집단 가창 문화 또한 한국 근대음악의 특징에 대해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는 격변의 시대, 유난히도 아프디아픈 시대였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태동하기도 전에 나라를 잃고 헤매야 했다. 그사이 우리가 놓쳐버린, 곁에서 멀어진 노래들이 있었다. 이제 그 노래들을 다시 만날, 만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 송지원 외 지음, 『음악, 삶의 역사와 만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1, 225쪽.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몽가요",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538>, (25.6.25.)

감상 포인트 4: 과거에 대한 응답, 미래로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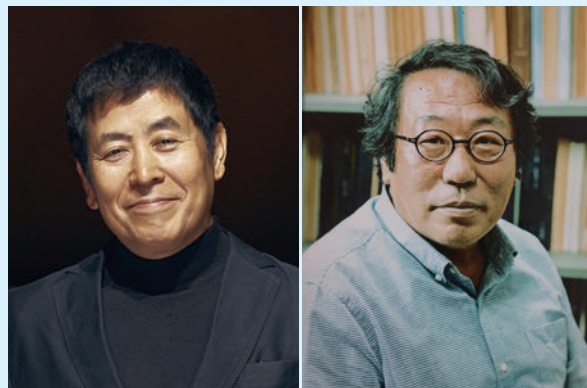
<빛이 된 노래>의 예술감독과 지휘는 '미래에 남을 오늘의 음악'을 만들고자 새로운 전통음악의 지도를 그려가며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물결을 일으키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김성진 예술감독이다. 그간 국악 관현악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자유로이 오가며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아온 만큼 이번 공연에서는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인 만큼 가슴 벅찬 공연의 연출과 무대 디자인은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동우 무대 디자이너가 맡았다. 무대 디자이너로서 작품을 꿰뚫는 통찰력과 이를 구현해내는 표현력과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을 받은 그는 2022년 국립국악원이 선보였던 <임인진연>의 연출을 맡아 호평받은 바 있다.

과거에 두고 온 겨레의 노래를 다시 무대로 불러옴으로써 오늘날에도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고 싶다는 이신우 작곡가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본성, 전통음악과 예술, 자연에 관해 탐구하며 작품으로 깊이 다루고자 하는 작곡가이다. 그는 우리 민족과 울고 웃은 '애국', '애족', '애민'의 노래 등을 다시 엮어 당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교향적 칸타타를 만들어낸다. 그의 음악은 이번 공연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신우 작곡가가 공연에 음악적인 숨결을 불어넣는다면, 공연 자체의 정체성은 기획 자문을 맡은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한국 근현대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민경찬 교수는 깊이 있는 한국 근대음악 지식을 기반으로 당대 우리 민족을 웃고 울렸던 노래들로 공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24년 4월 26일 <Echo of Gyeonggi: 노랫가락>으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멋진 조화를 이뤘던 수원시립합창단이 이번 공연에서도 협연함으로써 관객에게 더욱 큰 울림을 안길 것이다.

노래의 힘은 생각 이상으로 세고 강하다. <빛이 된 노래>는 끝끝내, 기어이 '지금 이 순간'에 당도해 빛이 된 노래들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과거에서 날아온 노래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열이 담겼다. 또 모진 세월에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이 담겨 있다. 이제는 그 역사와 열, 희망을 오늘의 노래에 담아 미래로 날릴 차례이다. <빛이 된 노래>는 과거의 외침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미래로 보내는 음악 편지가 아닐까. 8월 2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을 찾으면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그 편지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박동우 연출 및 무대 디자인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

민경찬 기획 자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연습 현장

“살아야지, 그러니 더 노래 불러야지”

빛이 된 노래들의 하모니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작업 노트¹

¹ 본 글은 이번 공연의 기획 자문을 맡은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의 글과 이신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가 보내온 작업 노트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편집하고 정리해 실은 것임을 밝힌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총사령부(출처: 우리역사넷)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은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에서 노래가 지닌 힘을 이렇게 말했다.

“막막하던 마음으로 흥겨운 타악기의 소리, 코러스들의 목소리, 깊고도 낮은 그녀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오면, 잠들어 있던 생명이 서서히 요동치며 꿈틀거린다. 살 거야. 살아야지. 살고 싶어. 춤추고 싶어. 더 무릎을 꿇어야지. 더 리듬을 타야지. 더 부딪혀야지. 더 껴안아야지.”

노래는 때때로 종교나 사람보다 힘이 세다. 일제강점기 같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노래는 어김없이 저마다의 위로와 희망이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는 역사적 현장은 물론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던 그 위로와 희망을 불러낸다. 이번 공연이 만들어진 계기와 배경, 그리고 창작 의도를 살펴봤다.

정리, 편집실 | 연습 사진, 박성수(싸우나스튜디오)

민족의 혼을 일깨운 노래

‘노래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Cantare에서 유래하는 칸타타(Cantata)는 17~18세기 바로크 시대에 발전한 성악곡의 한 형식으로 독창과 중창, 합창이 악기 반주와 함께 이루어진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의 제목(빛이 된 노래) 앞에는 ‘교향적 칸타타’라는 명칭이 붙는다. 국악을 기반으로 하되, 칸타타의 요소와 교향곡이 결합된 형태의 공연이 될 거라는 뜻이다. <빛이 된 노래>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억과 정서,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노래들을 곁을 따라 엮은 교향적 칸타타 공연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외부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민족은 자발적으로 의병(義兵)을 조직해 나라와 마을을 지키고는 했다. 의병들은 군사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물론, <의병가> 같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외세에 대항했다. 나라가 외침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래로써 외적에 대항한 전통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셈이다.

근대에 들어선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1945년 8월 15일까지 계속됐던 일제강점기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도 탄압 대상이었던 만큼 우리는 스스로의 선율조차 만들기 힘든 시대를 관통했다. 그럼에도 선조들은 “사람의 마음과 국민의 정신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는 데는 노래가 으뜸이다”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구국의 노래를 만들어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

위로와 희망이 된 노래들

<압록강 행진곡>, <영웅추도>, <사고우>, <독립군가> 등 많은 노래가 그렇게 탄생했다. 해외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군들은 <독립군가>를, 민간인들은 독립운동가와 항일가요를 만들어 불렀다. 학교에서는 애국창가가 불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광복군이 창설할 때도 <광복군가>가 만들어졌다. 항일과 독립, 광복 등의 내용이 담긴 그 시절 노래들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전승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이명숙 연구실장은 당시 항일노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노래가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자주 반복해 불렀기 때문이리라. 항일 독립을 염원하는 동포들이 내용적·정서적으로 공감해 유행한 노래가 시간이 흘러도 여전한 독립 의지를 다지는 매개로써 공유되며 불렸던 것이다.”²

노래는 즐겁거나 행복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다. 힘들거나 고난이 닥쳐도 우리 민족은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노래는 우리의 위로가 되고, 삶이 되고, 희망이 됐다. 나라를 빼앗긴 어려운 시대에 조국 독립을 염원하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노래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됐기에 식민지라는 어둡고 지난한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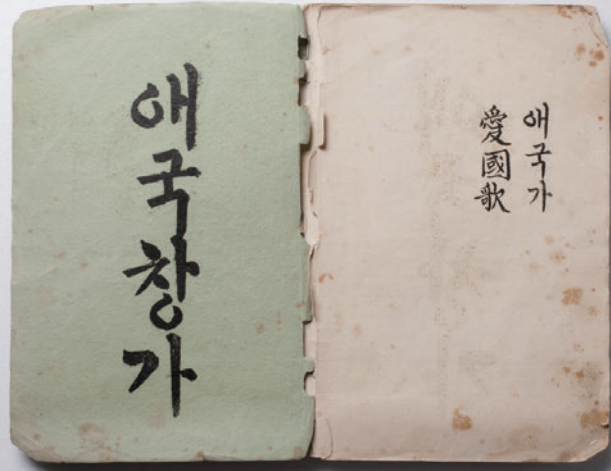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잊힌 노래, 잃어버린 노래가 됐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때 그 시절의 노래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 <빛이 된 노래>의 가치는 되새길 만하다. 잃어버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찾는 것은 물론 음악을 통해 애국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를 음미해보고자 마련된 공연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불렀던 곡들을 국악 관현악으로 재구성했고, 거기에 작곡자의 현대적 감성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우리의 노래들을 찾아 빛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2 이명숙, 「신홍무관학교의 노래 (4) : 「애국가」 등 7곡의 항일노래」, 민족문제연구소, <https://www.minjok.or.kr/archives/137293>, (24.1.29.)





①



②



③

① 『광복군가집』(출처: 국가유산청)

② <애국창가> 악보집(출처: 국가유산청)

③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표지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④ 한국광복군 제2지대 복원귀국대 대원증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⑤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내지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⑥ <3·1독립운동가> <조선독립군가> <조선의병가> 가사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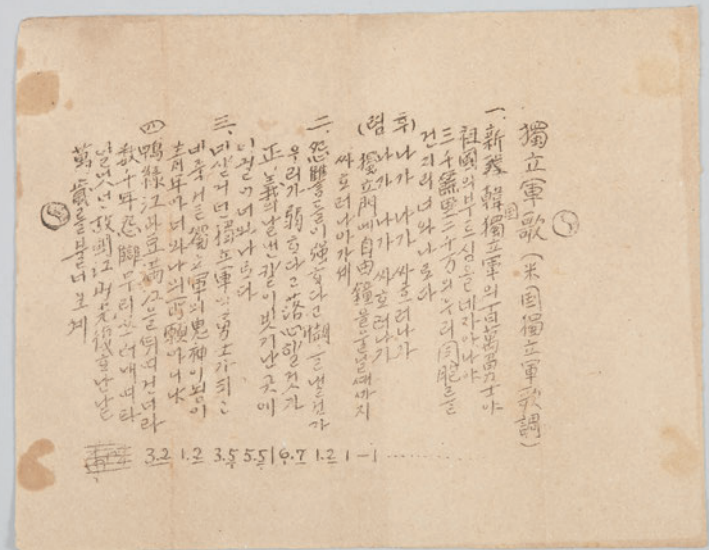
⑦ <독립군가> 가사(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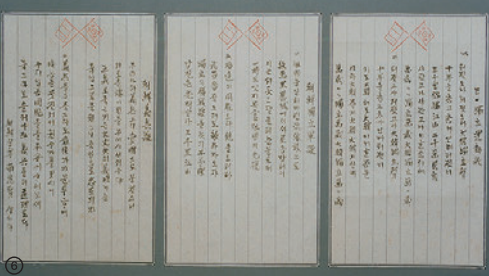
④



⑤



⑦



⑥

경청과 응답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만남

세계 초연곡으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의 작곡은 이신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가 맡았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본성을 고민해온 그는 서양음악은 물론 우리나라 고전과 국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빛이 노래>에서 그 연구와 고민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그는 한국 근대음악의 태동과 독립 정신이 담긴 수많은 노래들을 엮어 거대한 한 편의 국악 교향곡으로 만들어낸다.

일제강점기에 불린 <압록강 행진곡>, <영웅추도>, <독립군가> 등 항일과 독립 관련 노래 중에는 외국 군가나 민요, 찬송가 선율에 우리말 가사만을 덧붙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절박한 결의와 억눌린 감정, 그리고 꺼지지 않은 염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새야 새야 파랑새야>와 <사고우> 같은 민요와 서정 가곡, <패지나 칭칭 나네>와 <강강술래>처럼 민중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리듬을 간직한 노래, 대한제국 시기의 애국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애국가까지. 이들 노래 중 다수는 특정한 작곡가 없이 불렸고, 악보로 정리되지 않은 채 구전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 울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신우 작곡가는 “<빛이 된 노래>는 그러한 소리들에 대한 경청이자, 오늘날의 감각으로 응답하는 작곡적 시도이다”라며 창작 의도를 설명한다.

그는 경청과 응답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를 한 곡에 엮어낸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가 작사한 독립운동 가요는 20곡이 훨씬 넘는다고 추정된다. 이 교수는 그중 하나인 <한반도가>의 가사 일부를 가져와 새로운 선율의 옷을 입혔다. 역시 도산이 작사한 <거국행>과 <사고우>가 제4악장에서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 <사고우>는 원래 민요 선율과 새롭게 붙인 선율이 교차되며, <거국행>의 문장들과 어우러져 이별, 다짐, 그리움, 결심이 교차하는 정서적 흐름을 형성한다. 두 노래의 출처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의 감정적 결을 공유하며 하나의 악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장된다.

반면 제3악장에서는 <강강술래>, <패지나 칭칭 나네>, <압록강 행진곡> 등 서로 성격이 다른 노래들을 병치했다.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해학과 기쁨, 그리고 독립운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강한 정신을 축제 스타일의 음악 흐름으로 표현한다. 슬픔과 투쟁의 역사에서 순간순간 터져 나왔던 노래의 리듬과 해학은 이 작품 전체를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아리랑>이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방식으로 불린 노래들이 아리랑의 선율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진다. 위로는 고통을, 빛은 절망을 품어낸다. 국악관현악의 장중하고 깊은 울림 위에 역사의 숨결과 고요한 의지가 더해지면, 우리는 광복을 꿈꾸며 온몸과 마음 다해 노래 불렀던 당시 사람들의 흔적들과 만나게 된다. 소리가 되지 못하고 파편처럼 흩어졌던 그 조각난 이야기들이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오늘의 울림’으로 한데 모여 되살아난다.

“공연장에서 음악이 퍼질 때 그 시대의 절실한 목소리와 아직 꺼지지 않은 정신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도 조용한 떨림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이신우 작곡가의 바람처럼 <빛이 된 노래>의 선율은 공연 관객들에게 ‘조용한 떨림’으로 전해질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희로애락이 함께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더 많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역사 속 ‘우리’는 늠름하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무너지지 않았다. 민중과 서민, 백성 등 그 어떤 말을 붙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강인한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은 흥얼거리는 노래에 꼬깃꼬깃 담겨 오래도록 전해진다. 우리가 만들고 부르고 듣는 노래 속에서 꿈틀거린다. ‘살 거라고, 춤출 거라고 리듬을 탈 것’이라고 말한다. 서로를 껴안고, 이 삶과 시간을 더 포근히 껴안을 것이라고.

8월 2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빛이 된 노래>는 ‘과거’의 굳건했던 그 생명력을 ‘현재’의 시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역사 속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노래들은 말한다. 우리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아 승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빛이 된 노래들의 하모니와 만날 시간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이제 막 봄의 한가운데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그는 여전히 경계를 넘나든다.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한국음악을 지휘하며 마치 평행우주 같은 두 세계를 자유롭게 종횡한다. 긴 여백 끝에 쏟아지는 음표처럼, 김성진 예술감독의 음악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하다. 2024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그는 이제 '무엇이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단원들과 함께 경계를 넘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날개짓을 펼쳤다. 오는 8월 23일 경기아트 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를 준비 중인 김성진 예술감독을 만났다.

글. 박채림 | 사진. 박성수(싸우나스튜디오)



Q. 취임한 지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여쭙어봅니다.

처음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돌아봐도 '절망' 말고는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질 않네요. 사실 클래식 오케스트라는 긴 역사를 거치며 만들어진 일종의 틀이 있습니다. 음악만 잘 만들면 되지요. 국악 관현악은 사정이 다릅니다. 비교적 역사가 짧고 아직은 불안정한 부분도 많아요. 저는 그동안 우리 음악과 클래식 사이에서 뭔가를 쌓아 올려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두드리며 벽을 허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희망이 움텄다가 다시 절망이 덮치고는 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포기하는 심정이 생긴 듯했지요. 그러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단원과 만난 이후로 제 마음속은 희망으로 빼곡해졌습니다.

Q. 취임 이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상블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30명 이상의 작곡가와 작업하며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는 곡도 많아졌고요. 늘 강조하지만 무대에 올린 작품이 축적되고 연속성을 가지면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레퍼토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미 훌륭했기에 더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연주력은 물론이고요. 우리 단원들은 마치 물과 같아서 어느 장르의 그릇에 담가도 유연하게 녹아듭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겠지요.

Q.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오케스트라는 솔로나 양상블이 아니기에 기본 구조가 무척 중요합니다. 작은 초가집이 아니라 큰 빌딩을 짓는 일이니까요. 대신 그 안에 한국적인 정서도 잘 녹여내야 합니다. 초가집을 짓는 방식 혹은 기존의 빌딩을 짓는 방식으로 해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저는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한다면 충분히 우리만의 무언가를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다만 이를 바탕으로 더 높게 날아오르려면 일종의 기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꾸준한 지원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리, 그리고 레퍼토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청중을 어떻게 모을지도 끊임없이 골몰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련된 포장재를 만들기 위한 무언가, 관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있어요.

Q. 말씀처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계시죠.



'국악의 대중화'라는 말이 요즘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때도 없었던 듯합니다. 과거에는 감동적이고 즐거운 무언가를 접하려면 공연장에 가야만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공연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국악이 즐거워지면 일종의 공부도 필요한데, 이를 전달할 토대가 아직 부족합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학교나 시민 현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관객 맞춤형 레퍼토리를 들려드리고, 매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유튜브 채널에 공연 실황도 올리면서 더 쉽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해외 음악인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클래식 향유자들이 국악에 큰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국내보다 더 뜨거운 해외 반응을 그간의 작업을 통해 확인했어요. 클래식이 가진 매끄럽고 섬세한 사운드와 달리 우리 음악에는 걸쭉하면서도 명료한 획을 긋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투박하지만 때로는 텅텅하기도 하고. 대나무 숲에 바람이 이는 듯한 소리, 발이 비에 축축이 젖어가는 질감이 담겨 있지요. 다가가기 어렵지만 일단 전해진다면 분명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Q. 과거와 현재, 동양의 서양의 '경계'에 있는 국악 지휘자로 손꼽히죠. 지휘자로서 무대를 준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휘자는 악단과 청중의 사이에서 있습니다. 무대에서의 제자리 또한 '경계'인 셈이지요. 경계에 서 있는 자는 양쪽을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대를 준비하고 올리는 모든 과정에서 단원, 청중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되새기려 합니다. 지휘자로서 단원을



이끌며 갖는 기준도 있지요. 사실 클래식 오케스트라는 앞서 말했듯 기존의 틀이 있기에 음악에 맞춰 연주자를 재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음악은 달라요. 한옥을 짓듯 각각의 연주자들이 가진 결을 살리면서도 모난 틈을 잘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듯 연주자와 관객의 경계에서 양쪽을 다 들여다보고 각자의 결을 살리는 일이 참 재미있습니다. 또 우리 음악과 나라 바깥의 경계에서 자꾸만 소리쳐 보고 그 너머의 반응을 확인하는 일이 즐겁고요. 경계가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경계에서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때로 외롭지만 그만큼 자유롭지요. 저는 그렇게 경계에서 양쪽을 볼 뿐입니다.

Q. 올 8월에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가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과 작곡진이 철치부심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리지 않는 역사 속 음악을 무대로 소환하는 작업이죠. 지금은 까마득한 어떤 기억과 정서를 관객에게 전하고 싶어요. 또 그 후 세대의 관객에게는 우리에게 이런 선율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전하는 무대가 될 겁니다. 서양음악을 작곡해온 이신우 작곡가가 곡을 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하모니가 완성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무대가 우리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담은 대표적 레퍼토리로 남길 바랍니다. 그만큼 다양한 세대 그리고 근대성과 현대 사이의 경계에서 모든 부분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Q. 이번 공연과 관련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 앞에는 '교향적 칸타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분명 국악을 담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작곡가, 연주자들이 지닌 풍부한 정서를 보여주고 싶어요. 국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클래식의 섬세함을 찾는 분들에게도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의 기반이 된 옛 노래들은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였기에 가능한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인만의 뜨거운 감정이 공유되길 기대합니다.

Q.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만의 특별함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연주자의 마음에 티끌만큼의 독성이 있다면 관객에게 울림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단원들은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매일 정해진 연습 시간을 훌쩍 넘겨서 자발적으로 연습해요. 그 열정에 응답하기 위해 저도 오전 10시 연습에 맞춰 6시부터 출근해 준비를 시작하지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가진 자발적인 열정, 그 에너지가 우리의 가장 큰 특별함이자 자랑입니다.

Q. 지휘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행복하기보다는 아프지요.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뜨겁습니다. 아직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 일까요? 행복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음악 여정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함께 4악장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3악장을 지나왔지만 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 다. 어쨌든 이 악장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여한 없이 치열하게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음악이 주는 위로는 있지요. 열일곱 살 때 처음 피아노를 접하기 전까지 음악은 제게 자연이었습니다. 우리 음악에는 제 유년 시절의 냄새가 그대로 스며 있어요. 논에서 독새풀 올라오는 냄새, 널브러진 소똥, 대나무숲에 스민 바람과 실을 뽑는 누에고치, 뽕밭에서 뽕을 따던 할머니의 냄새까지요. 고통스럽지만 그립고 위안이 되는 냄새들입니다.

Q. 언젠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그려보고 싶은 무대가 있나요?

관현악의 정점을 찍어보고 싶다는 바람은 있어요. 연주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는 다만 한 곡이라도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면 떠오르는 대표곡을 만 들어내고 싶습니다.

Q.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지금을 한 계절로 표현한다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봄이 아닐까요? 꽃이 피긴 했지만 아직 만개하진 않았어요. 씨앗은 충분히 뿌려두었고요. 나뭇가지엔 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가끔은 꽃샘추위가 밀려와도 나무는 기필코 꽃 피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초입에서 이제 막 봄의 한 가운데로 가려는 참입니다.



STAGE

PREVIEW

① 다시 만난 청년들의 빛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

2025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② 8월의 여름밤, 소나기처럼 스며드는 고전 문학과 음악의 만남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

③ 경기민요의 정수가 궁금하다면

<2025 경기소리 -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REVIEW

① 동시대성을 갖춘 한국무용으로 그려낸 겸양의 미덕

경기도무용단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

② 낮설지만 용감한 투쟁, 신비롭고 유쾌한 모험

경기도극단 <단명소녀 투쟁기>

③ 투쟁과 극복, 환희의 서사가 보여주는 그 '기세'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I <투쟁, 극복, 환희>





다시 만난 청년들의 빛나는 현재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간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붙잡을 수 없고, 다가올 시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현재에 충실하면 빛나는 미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재'가 되지 않을까.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는 청년 예술인들의 현재를 응원해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그리고 미래

2025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PREVIEW

①



66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작품을 완성해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로,
그들의 신선한 시도와 예술적 열정을
모두 담아내고자 마련됐다.

99



“날 보러 와요”

2025년에 다시 돌아온 경기도 청년들의 무대

예술 분야의 청년들은 실질적인 무대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정책적인 지원이다.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예술계 진입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사업은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작품을 완성해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로, 그들의 신선한 시도와 예술적 열정을 모두 담아내고자 마련됐다.

작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가 좋은 반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의 우수 콘텐츠를 재공연하는 것은 물론, 올해 신규 공연 제작을 지원하며 예술 활동의 연속성과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순회공연을 통해 도내 공연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2025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사업은 크게 ‘재공연 프로그램’과 ‘신규 청년 예술가 선발 및 공연 지원’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재공연 프로그램이 올 9월과 10월 공연을 가질 계획이라면, 신규 공연은 올 7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한다. 8~9월 신규 공연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장르별(음악/무용/연극 등) 청년 예술가들은 경기도예술단 멘토들의 지원을 받으며 연습을 거친 뒤 12월 공연을 갖게 된다.



“나를 잊지 말아요”

재공연 프로그램 운영

작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는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과 청년들의 신선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셈이다. 2025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에서는 작년 공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재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가들의 공연을 위해 도내 지역 공연장들도 힘을 보탰다. 협업을 통해 공연장 일정을 조율했고, 공연 홍보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경기아트센터 중심의 공공 공연장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

재공연 프로그램은 총 세 작품으로 구성된다. <현릉원의 약속>은 아버지 영조에게 맞서다 그 노여움이 자식 이산에게 미칠까 염려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도세자의 마음,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도 성군이 된 정조의 효심과 그리움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젊은 연주자 시리즈>가 음악 분야의 유망한 젊은 연주자들에게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연이라면,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1957년 제작된 동명의 법정 영화를 원작으로 한 연극이다. 무대 전환 없이 오로지 인물 간 대화와 표정만으로 극도의 긴장감과 빠른 전개를 보여준다. 청년 예술가들이 뿜어내는 열정과 에너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관객, 작년에 놓친 사람이라면 꼭 찾아가 볼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다. 참여하는 청년 예술인들의 출연료와 연습비 등은 경기아트센터의 일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공연 일정

재공연은 총 7회 열릴 예정으로, 6월 기준 확정된 공연 계획은 다음과 같다.

장르	공연 일시	공연명	공연 장소
한국무용	9.6(토)	<현릉원의 약속>	과천시민회관
클래식	9.13(토)	<젊은 연주자 시리즈>	양주문화예술회관
클래식	9.21(일)	<젊은 연주자 시리즈>	김포아트빌리지
연극	10.24(금)~25(토)	<12인의 성난 사람들>	군포문화예술회관

* 상황에 따라 일정 추가 또는 변동 가능성 있음



2025년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모집 공고 보기



66

청년 예술가들의 공연을 위해
도내 지역 공연장들도 힘을 보탰다.
협업을 통해 공연장 일정을 조율했고,
공연 홍보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99



PREVIEW ②



8월의 여름밤,
소나기처럼 스며드는

고전 문학과
음악의 만남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

사춘기 소년·소녀의 첫사랑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황순원 소설
가의 대표작 『소나기』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2025 서
가콘서트: 소나기>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올 8월 21일
우리와 만난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소설의 문체를 그대로 살린

섬세하고 서정적인 공연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는 소설과 음악이 만나는 북클래식 콘서트다. 우선 황순원 작가의 소설 『소나기』를 중심으로 사회를 맡은 소설가 해이수가 줄거리, 작가 생애, 작품과 관련된 음악가 에피소드 등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작가 및 작품 탄생의 배경을 소개하는 데 이어 소설 줄거리에 따라 주요 장면을 제시하면서 각 장면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과 한국 가곡이 연주되는 방식으로 공연이 전개된다. 이러한 공연의 전개는 관객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채울 수 있다.

『소나기』는 순수한 첫사랑을 섬세하고도 서정적인 문체로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시냇가에서 만난 소녀와 친해진다. 둘은 함께 들판을 걷고, 소나기를 피하고자 헛간에 머무는 과정 등을 통해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소녀는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다. 소년은 어른들의 입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는다. 소설이 전하는 '맑고 간결한 사랑의 정서'를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가 어떻게 표현해낼지 궁금하다면, 8월 2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을 찾아볼 일이다.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의 사회자 해이수 소설가



음악감독 조정현(오보에)



바리톤 박은용



바순 김진우

첫사랑의 감성에

빠져들 무대

이번 공연에서는 2022년 창단해 관악기들의 다채롭고 개성 있는 소리를 전해온 더 케이원즈(The K-Winds)가 함께한다. 더 케이원즈는 음악감독 조정현(오보에)과 김민희(플루트), 장재혁(클라리넷), 김진우(바순) 등 젊고 능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관악 앙상블이다. 여기에 피아니스트 정승원의 연주, 바리톤 박은용 등의 노래가 더해지며 소설 『소나기』가 담고 있는 첫사랑의 순수함과 이별의 아련함을 섬세한 선율로 표현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프란츠 슈베르트와 에릭 사티,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서정적인 곡과 이수인의 한국 가곡은 물론 조동진의 <제비꽃>과 작사가 한경혜의 노랫말이 돋보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다양한 곡을 소화하며 우리의 정서와 서양 클래식 감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어우러짐은 원작 소설이 지닌 감동을 배가할 것이다.

공연 관계자는 “그간 『데미안』과 『호밀밭의 파수꾼』, 『위대한 개츠비』 등 해외 고전 문학을 주로 다루었던 서가콘서트가 처음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다룬다”면서 “우리 정서를 담은 한국 가곡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구성하여 관객들이 순수하고 아련한 첫사랑의 감성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 공연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돼 있다. 만 원의 행복권, 65세 이상 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문화누리 할인(50%), 예술인패스, 청년패스, 병역명문가, 다자녀(2명 이상)·임산부 할인, 경기도 내 도서관 대출증 소지자 본인 할인(30%), 경기도·경기아트센터 카카오톡 친구 할인(20%)을 적용해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놀티켓(nol.interpark.com/ticket)과 경기아트센터 누리집(www.ggac.or.kr)에서 가능하다.

<2025 서가콘서트: 소나기>

일시: 8월 21일(목)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금액: R석 3만 5,000원, S석 2만 5,000원



클라리넷 장재혁



플루트 김민희



피아노 정승원

경기민요의 정수가

궁금하다면

<2025 경기소리 -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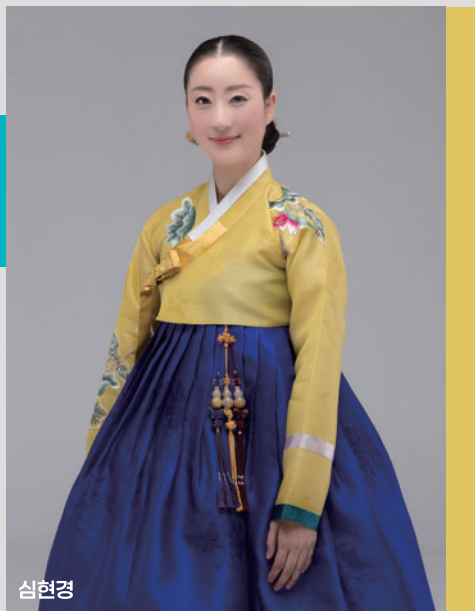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던 경기민요는 대체로 맑고 경쾌한 소리, 유연한 선율, 다양한 장식음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남도민요에 비해 한 글자에 여러 개의 음이 붙는 일자다음식의 선율이 많아 가락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다채롭다. 이번 7월 국립국악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 경기민요의 정수를 선보인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박진하



심현경

PREVIEW ③





‘산타령’이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희요로 산과 고개, 재 등을 읊는 노래라면, ‘긴아리랑’은 굿거리나 세마치장단에 맞춰 불리는 여타 경기민요와 달리 느린 속도의 기교와 세련미를 지닌 노래다. ‘노랫가락’은 서울·경기 지역의 굿에서 불리는 무가에서 비롯된 노래이고, ‘창부타령’ 역시 무당들이 부르는 무가였다가 점차 세상에 퍼지며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노래로 자리를 잡았다.

공연에는 성악팀은 물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연주진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낸다. 또한 가사집을 제작해 그간 구전으로 전해져 일반 관객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노랫말을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무대는 경기소리가 동시대의 음악으로 관객들과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2025 경기소리 -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일시: 7월 15일(화) 19:30
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금액: 전석 2만 원



1996년 창단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는 경기민요를 기반으로 국악관현악단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소리를 선보이며 경기소리의 다양성을 전파하는 성악팀이 있다. 이들은 <사계의 노래>, 시나위 악보가게 IV <환갑> 등 실험적인 무대와 차별화된 레퍼토리를 통해 경기민요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올 3월에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음반 <경기풍류시리즈 I: 12잡가>를 선보이며 경기 지역의 우수 전통예술을 확산하는 데 이바지했다. ‘경기12잡가’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번창했던 시가들로 경기 지역에서 특히 애호됐던 열두 곡의 잡가를 뜻한다. 경기민요라는 이름으로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2025 경기소리 -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의 무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소리의 예술성을 더욱 밀도 있게 제작해 특유의 맑고 경쾌한 소리가 특징인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정수를 보이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산타령’, ‘긴아리랑’,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 총 네 곡으로 구성된다.





동시대성을 갖춘 한국무용으로 그려낸

겸양의 미덕

경기도무용단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

경기도무용단은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기획인 '성군(聖君)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년 말 세종에 이어 이번 봄에는 정조를 선택하여 시대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고찰했다. 전작 <세종>이 세종대왕 영릉의 천장(遷葬)을 주관했던 예종의 시점에서 한글 창제 과정을 드라마 춤으로 펼쳐냈다면,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은 혼란과 수평, 그리고 사색의 구성을 통해 겸양의 미덕을 갖춘 성군 정조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글. 심정민(무용평론가, 비평사학자)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REVIEW

①

해외 관객도 공감할 성군 정조의 이야기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 시도로 행정구역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마다 대표성을 띠는 국·시·도립 무용 단체가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국·시·도립 무용 단체는 나름의 프라이드를 갖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전국구로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정체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지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경기도무용단이 그러한 사례로 손꼽힌다.

1993년 창단하여 올해로 32년째를 맞이한 경기도무용단(예술감독 김경숙)은 전통과 창작을 망라하여 우리 춤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 의식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고(故) 정재만, 조흥동, 김근희, 김정학처럼 무용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무용가들이 경기도무용단의 예술적 저력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이와 더불어 경기아트센터를 구심점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기도극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와의 시너지도 간과할 수 없다.

경기도무용단은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기획인 '성군(聖君)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년 말 세종에 이어 이번 봄에는 정조를 선택하여 시대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고찰한다. 전작 <세종>이 세종대왕 영릉의 천장(遷葬,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주관했던 예종의 시점에서 한글 창제 과정을 드라마 춤으로 펼쳐냈다면,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은 혼란과 수평, 그리고 사색의 구성을 통해 겸양의 미덕을 갖춘 성군 정조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성군 시리즈는 국내 관객뿐 아니라 해외 관객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기아트센터가 추진하는 '글로벌 G-아트 브랜드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다.

정조(正祖)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으로 문무가 뛰어났다. 위민(爲民) 정치라는 이상을 가져 요즘 사람들에게는 '제2의 세종'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적으로는 의빈 성덕임과의 러브 스토리가 <이산>이나 <옷소매 붉은 끝동> 등의 드라마로 만들어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정조에 관한 일화는 상당수인데, 그중 하나로 화살을 매우 잘 쏘는 명사수임에도 불구하고 50발 중 49발은 명중시키고 1발은 허공으로 쏘아 군주의 겸손이라는 미덕을 드러냈다는 일화가 꽤 유명하다. 이러한 정조의 화살을 소재로 한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은 3월 28~2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을 장식하였으며 그다음 주에는 경기국악원에서 재공연되었다.



혼란과 수평, 그리고 사색의 구성

이번 공연은 '상하사방균제방편(上下四坊均齊方平)', 즉 천자가 고르고 가지런해지면 온 백성이 평등한 세상이 된다는 정조의 이상을 통해 현대의 리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공연은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에 집중하기보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세 개의 장으로 진행된다. 1장 '혼란'에서는 불신과 차별 그리고 부패가 가득한 혼란의 시대가 그려지며, 2장 '수평'에서는 50발 중 49발을 명중하되 마지막 1발을 허공으로 날리는 겸양을 나타내고, 3장 '사색'에서는 수평선 너머로 사색하며 길을 걷는 모습으로 여운을 남긴다. 이러한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은 상임안무가 최진욱을 중심으로 상임단원 손승주와 김민정이 조력하며 안무를 완성했다. 총 22명의 남녀 단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도입부(Introduction)에서는 오래도록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듯한 초로의 노인이 다른 이와 서로 논쟁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행태가 여러 몸짓으로 펼쳐진다. 여기서는 무용극 스타일로 펼쳐지는 듯한 인상이었으나 본격적인 전개에서는 각 장의 주제 이미지에 대한 춤적 형상화로 실현된다.

1장은 평상복 차림의 아홉 명의 여성 무용수가 주축이 되어 작은 개인용 상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열의 변화를 꾀한다. 정조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노론과 소론의 당파싸움은 극심했는데 이를 군무의 대립구조로 표현한다. 이 구조는 11자로 서서

마주보기에서 시작하여 사다리꼴이나 원형 등의 구도를 포함한 다채로운 짜임새로 그려진다. 경기도무용단의 여성 단원들은 기량, 표현, 체형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드럽고 유연한 흐름에서도 단전에 탄탄한 에너지를 함축한 움직임에서 특히 그러하다. 붉은 옷의 여성 독무(박진경)는 '혼란'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2장에서는 신궁(神弓)이었음에도 50발 중의 한발을 허공으로 쏘아 겸양의 미덕을 실천한 정조의 정신이 그려진다. 검은색의 단정한 의상을 입은 스무 명의 남녀무용수는 5×4열로 서서 유니슨(Unison, 일치)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전개한다. 이들에 의해 한층 중성적인 뉘앙스의 단체 춤이 완성되는데 언뜻 종묘제례악의 문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체계적인 구조의 움직임을 일사불란하게 펼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유사한 패턴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춤이 일곱 명, 다섯 명, 세 명, 한 명 등으로 구성적인 변화를 꾀함으로써 구성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구조로 상하좌우의 대립과 무질서는 점차 중용을 찾아가면서 소통과 포용으로 나아간다. 1장에서 여성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면 2장에서는 남성 군무의 힘 있는 움직임이 분위기를 상기한다.

3장에서는 애민(愛民) 정신으로 혼란의 시대를 지나 번영과 안정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 의식을 표현한다. 무용수들이 두 팔을 넓게 벌려 세상을 감싸안 듯 움직이는데 이는 작품을 관통하는 평등, 조율, 화합의 형상화로 여겨진다. 도입부에 등장한 초로의 남자가 다시 등장하여 수미상관을 이루며 마무리된다. 그는 정조일 수도 있으며 시대의 스승이거나 우리 사회를 지키는 소시민일 수도 있겠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군의 미덕을 엿보다

경기도무용단의 창작 발표에서 단원들은 언제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하는데, 여기서도 손승주, 박영일, 김상열, 이진택 등 남성 무용수 아홉 명과 함께 김민정, 이나리, 이다인, 박노실, 차민정, 박진경 등 열세 명에 달하는 여성 무용수가 한국 춤사위에 근간한 동시대적인 창작을 더할 나위 없이 실재화하였다. 기교와 춤의 선, 그리고 외형에 강점을 지닌 여성 단원들의 역량이 여실한 가운데 남성 춤의 향상도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이상의 균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안무를 맡은 최진옥은 국립무용단 수석, 동아무용콩쿠르 대상, 한국무용제전 최우수상,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기도무용단 상임안무자 등 굵직한 경력이 말해주듯 실연과 창작에서 모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창작적인 면에서는 한국 춤사위에 동시대성을 함양하여 이 시대의 관객에게 한국무용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작품의 구조적 짜임새를 잘 전개하는 특성은 <5049: 허공에 날린 화살>에서도 여실하다. 이렇듯, 최진옥 안무에 무대 디자인 이태양, 조명 디자인 김건영, 음악 하임(haihm) 등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적절하게 작품을 완성한 가운데, 총 22명에 달하는 무용수들의 존재감은 소극장 무대를 꽉 채우다 못해 작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을 정도로 강렬하다.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어울림이라든가 시너지가 높게 느껴지는 바, 대극장 레퍼토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성군의 미덕을 비취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리라.

※ 본 원고는 <댄스포럼> 2025년 5월호에 실린 리뷰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심정민

무용평론가이자 비평사학자. 한국춤평론가회 회장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현재 <춤>과 <댄스포럼>에 고정 지면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에서 심의·평가·자문 등을 맡아왔다. 저서로는 『무용비평과 감상』(2020)과 『춤을 빛낸 아름다운 남성무용가들』(2019) 외 다수가 있다.



낮설지만
용감한 투쟁,

신비롭고
유쾌한 모험

경기도극단 <단명소녀 투쟁기>

② REVIEW

제1회 박지리문학상 수상작 『단명소녀 투쟁기』는 몽환과 비현실의 세계에 단도직입으로 다가서는 천연덕스러움이 돋보인다는 극찬을 받은 소설이다. 경기도극단은 현실과 이계를 넘나드는 이 이야기를 극화해 2024년 선보였다. 그리고 2025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 이야기의 주인공인 단명소녀가 다시 무대에 섰다. 관객들은 슬프지만 아름답고 낮설지만 용감한 단명소녀의 투쟁, 신비롭게 유쾌한 모험 이야기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글. 현연아(춘천문화재단 예술센터장)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죽음을 거부하기로 한 소녀 구수정의 모험

“야, 넌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싫다면요?”

<단명소녀 투쟁기>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운명을 받아 든 소녀가 그 운명을 거부하기로 결심하는 이 대화에서 시작된다. 원작 소설은 이 중요한 장면에서 죽음을 운명의 소녀 ‘구수정’의 심리적·육체적 반응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며 그려낸다. 열아홉 살 소녀 구수정은 ‘윙한 점쟁이’라 소문난 복두의 신당에서 곧 죽을 것이라는 운명 같은 예언을 듣는다. 웃어보려 했으나 눈은 움직이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빌고 싶지만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내뱉은 말이 바로 “싫다면요?”였다. 소설은 이 묘사를 통해 스무 살이 채 안 된 소녀에게 죽음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 소녀가 그 운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낸다.

소설에서는 복두의 신당에서 시작해 길에서 마주하는 모험의 공간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지만, 연극에서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각색해 보여준다. 무대에 줄곧 드리워져 있는 하얀 배경은 구수정의 처한 현실, 즉 병원을 뜻한다. 그러니까 연극에서 구수정의 모험은 입원 중인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소녀 구수정은 ‘죽음을 죽이고자 남동쪽으로 걷는다. 이 모험 이야기는 그 길 위의 상황들을 ‘장면에서 장면으로’ 전환하면서 진행된다. 그러한 구수정 앞에 큰 덩치의 개 한 마리가 나타난다. 갑자기 맞닥뜨린 일상의 공포 같지만, 오히려 그런 공포와는 거리가 먼 장면이다. 이 개는 털의 색깔과 얼굴의 모양 모두 사자와 비슷하지만, 대신 뾰족한 귀와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졌다. 구수정은 그 개에게 ‘내일’이라는 이름을 준다.

죽음을 향한 인물들의 연대

수정과 내일에 이어 수정의 또 다른 내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안’이 극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소녀는 죽음을 향해 북으로 걷는 중이다. 구수정과 이안, 내일은 동행하며 장면(스테이지)마다 기이하고 신비로운 모험을 만나게 된다. 이 장면들은 마치 게임 세상에서 클리어해야 하는 단계별 스테이지처럼 보인다. 저승의 바위 사막과 마을을 지나고 강과 작은 섬을 지나 악사, 청소부, 눈 인간, 모기 인간, 허수아비 인간을 만나고 나면 이들은 마지막 스테이지라 할 수 있는 ‘저승 신’을 만나게 된다. 이 모든 사건은 소녀 구수정과 이안이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다. 죽음을 죽여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이야기의 전제는 의미심장하다. 현실의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겪는 고민을 ‘죽음’이라는 극적 장치 위에 풀어 놓음으로써 관객에게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원작이 느닷없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가까웠던 2021년에 발표됐음을 생각해 보면 한국 고등학교 3학년 주인공 소녀 구수정이 가지고 있던 진학에 대한 관심이 반신 복두의 한마디에 바로 ‘연명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된다는 설정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주인공들은 지난하고 치열하게 계속되는 입시 압박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질문인 존재, 나아가 연명에 집중하며 청소년기의 치열한 질문들을 풀어나간다. 원작자 현호정의 시대정신은 죽음을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함께 죽음에 대해 맞서는 등장인물들의 연대에 담겨 있다. 지난 4년간 바이러스와 대면하며 싸워온 관객들에게 이러한 작가의 시대정신은 낯설지 않게 다가왔을 것이다.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 적합한 연출 돋보여

경기도극단의 <단명소녀 투쟁기>는 청소년 주변의 여러 현실적인 압박을 극적으로 치환하고, 이를 가벼운 터치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현실의 난제를 제삼자의 시선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해방감을 준다. 여기에서 설화에서 찾을 수 있는 ‘청소년 단명’이라는 사건을 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확장하면서도, 그 진행 방식은 원작이 채택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구성으로 풀어내 좀 더 넓은 연극 관람층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극 <단명소녀 투쟁기>는 단명이라는 본인의 운명을 마주하고 이와 맞서기 위해 길을 떠나 찾아내는 인연들을 통해 삶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고민을 원작 소설과는 달리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해결한 공연이다. 연명을 위한 구수정의 여정은 마치 게임을 풀어나가듯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 관객이 흐름을 따라가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소극장 무대에서 펼쳐진 이 극은 진행 내내 원작의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 청소년극이 갖추어야 하는 친절함을 담아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리고 관객과의 친밀함이 극대화된 돌출형 구조의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각적 경험을 이끌어냈다. 대본 속 원형의 이미지들은 배우들의 동선과 움직임에서 끊임없이 시각화돼 나타났고, 죽음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른 구수정과 이안을 거치며 윤희 사상으로까지 연결됐다. 특히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의 형태적 특징인 돌출무대와 방사형 객석의 특성을 고려한 연출이 돋보인다. 이 소극장의 다른 공연과 비교하면 특히 더 잘 드러난다.

심플하게 구성된 무대는 배우와 그들이 분한 인물과 캐릭터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연출 의도와 의상의 역할까지 돋보이게 해준다. 이런 무대 연출 덕에 관객은 보다 극과 배우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극과 배우가 시각적 장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심플한 무대는 내재된 심리적 잔상을 특히 연극 무대에서 예리하게 시각화하는 조명 디자이너 김창기의 심미적 빛으로 채워졌다. 라이브로 연주된 음악은 극의 배경으로, 때로는 극 안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며 관객과 배우가 쉬어갈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냈다. 여러 장르의 공연을 넘나들며 어린이극에 경험이 많은 이경은의 안무는 특히 코러스의 움직임에서 템포를 만들어내며 극 전반에 걸쳐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극의 중심 주제를 대사로 풀어나야 하는 구수정과 이안, 내일을 맡은 배우들은 극 후반까지 충분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이 극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청소년 이야기를 예술의 장으로 끌어낸 따뜻한 시대정신

관객은 이야기의 서사보다는 장면마다의 볼거리와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 맞이하는 극적 해결 장면에서는 감각적으로 동감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 친화적인 이 이야기를 2024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경기도극단과 함께 펼쳐내려는 연출자의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연출을 맡은 김광보 예술감독은 경기도극단과의 첫 여정으로 세상의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던 청소년 이야기를 예술의 장으로 끌어내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이는 공공극단이 만나야 하는 지역과 관객에 대한 예술감독의 사유이자, 따뜻한 시선이 반영된 시대정신이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재공연된 <단명소녀 투쟁기>는 극단이 그간 축적해온 청소년극 레퍼토리들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축적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경기도극단은 이제 지역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에 소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공연이 주제의식, 심플한 시각적 장치, 재공연을 통한 배우들의 성장, 넓은 층의 관객 수용성 등의 특성을 더욱 확대해 경기도극단의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길, 나아가 공공극장과 단체의 역할을 찾아가는 순기능의 모범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현연아

춘천문화재단 예술센터장. '도시 예술의 장'으로서 공공극장이 갖는 역할을 고민하며 더 많은 사람과 공연하는 기쁨, 공연 보는 기쁨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투쟁과 극복, 환희의 서사가 보여주는 그 '기세'

③ REVIEW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I
<투쟁, 극복, 환희>



지난 4월 1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은 북적였다.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간판 프로그램인 '마스터즈 시리즈' 2번째 순서로 열린 <투쟁, 극복, 환희>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몰린 청중의 열기는 뜨거웠다. 김선옥 예술감독과 단원들은 이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과 말러의 교향곡을 통해 '투쟁하고 극복하며 끝끝내 환희'의 순간을 맞는 탁월한 서사의 연주를 보여줬다. 그들의 연주에서는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한 기세가 느껴졌다.

글: 유혁준(음악 칼럼니스트)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두 번째 마스터즈 시리즈가 보여준 '기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서양의 대표적인 문학 창작 이론서라면, 5세기 위진남북조 시대를 살았던 작가 유협(庾敳)의 『문심조룡(文心雕龍)』은 동양을 대표하는 문학 창작 이론서로 손꼽힌다. 아직도 교과서와 같은 이 책의 제30장 '정세(定勢)' 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사람의 정조와 흥취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창작 수법 역시 변화가 다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과 감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문장의 체제(體制)는 있을 수 없다. 그 체제에 의해 형성된 것을 문장의 기세(氣勢)라 한다."

이는 음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정조와 흥취는 사상과 감정에 의해 확정된 체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기세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10대 때부터 피아니스트 김선옥의 피아니즘은 자신이 설정한 체제를 넘어서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2년에 걸쳐 악관의 나이에 일군 베토벤 소나타 천곡 시리즈가 그러했다. 때로 이같이 깔끔한 'DNA'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청중에게는 다소 심심하고 메말라 보일 수도 있을 터였다. 이는 요즘 젊은 연주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추세이기도 했다. 전쟁 같은 극한의 환경을 경험한 20세기 중후반 거장들의 춘추 전국 시대와 요즘 세대의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번 공연의 지휘자 김선옥은 어땠을까. 지난 4월 1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은 북적였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의 간판 프로그램인 '마스터즈 시리즈' 2번째 순서로 열린 <투쟁, 극복, 환희>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몰린 청중의 열기는 뜨거웠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예술감독으로 경기필을 이끄는 김선옥의 말러 교향곡에 대한 애호가들의 관심은, 같은 곡으로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된 다음 날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으로 이어졌다.

전율을 이끌어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연주

이번 공연에서 말러 교향곡과 함께 연주된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는 모차르트가 삶의 후반기에 먹고살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때 작곡하고 스스로 초연했던 작품이다. D장조와 D단조는 24개의 조성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강력하다. 모차르트는 파리와 빈 데뷔 때 각각 31번과 35번 교향곡에서 당연히 D장조를 낙점했다. 자신을 어필하는 것은 물론 최초의 '궁정사회의 시민 음악가'로서 음악계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생계가 절박했던 시기인 1788년에 만든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는 그래서 1악장부터 온몸으로 몸부림쳐야 한다. 피아노 앞에 앉은 김선옥은 경기필의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기나긴 오케스트라의 도입부에서 두 손을 허공에 휘휘

저였다. 경쾌함과 흥겨움보다는 모차르트의 '질주하는 슬픔'을 구현하려는 듯 사뭇 진지한 몸짓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지는 피아노도 그 연장선상에서 움직였다. 템포는 빨랐지만 타건 하나 하나에 힘이 있었고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은 명징했다. 모차르트의 트레이드 마크인 조바꿈은 유연했고 그건 장조와 단조를 오가며 행복과 슬픔을 쉴 새 없이 교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1주제와 2주제는 대비보다는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했다. 김선옥이 20대에 스스로 정한 체제의 선은 30대 후반에 이르러 끓는점(Boiling Point)이 확실히 상승했다. 덕분에 그 '기세'는 더 긴장감이 넘치고 어떤 지점에서는 광폭함마저 느껴졌다. 2악장의 느낌은 오히려 더 묵직했다. 독주 피아노와 이를 되받는 오케스트라의 호흡에서는 2년 차에 접어든 지휘자와 단원 사이의 음악적 신뢰가 느껴졌다. 3악장에서 들려준 다이내믹한 변화는 모차르트도 말려만큼이나 하늘과 땅을 오가며 전율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모차르트의 고단한 인생이 반추되며 공연의 무게감은 배가됐다. 여기에 논 레가토(Non Legato)가 실현됐다면 최고의 모차르트 해석가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Nikolaus Harnoncourt)에 근접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값졌다.

말러 교향곡 연주로 보여준 도피적 낙관주의

말러 교향곡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건 '아다지에도(Adagietto)'로 유명한 5번이다. 하지만 여타 말러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장송행진곡'에서 시작해 괴상한 '춤판'을 거쳐 현실 도피의 '코랄'로 끝나는 여정은 난맥처럼 얽혀 있다. 기교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악단만이 사운드를 넘어 음악의 감동을 줄 것이기에 경기필과 김선옥의 담금질은 그 어느 때보다 충실했을 것이다.

아뿔싸, 1악장을 개시하는 트럼펫은 빠격거리며 주춤했다. 하지만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 경기필이 하루아침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처럼 될 수는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똘똘 뭉쳐 빛어내는 말러의 광기와 평화, 파국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호연이었다. 두 번 나오는 트리오의 '아수라장'은 비극과 붕괴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물론 더 선명하게 파국을 구현했어도 됐다. 무대 뒤와 객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코다(Coda, 종결 효과를 강조하고자 덧붙이는 부분)'에서 보여준 멀어져가는 장례 행렬 효과 또한 일품이었다. 트럼펫이 부르자 플루트가 응답하는 마지막은 쓸쓸하고 적막했다.

서주 역할을 하는 1악장에 이어 2악장, 지옥 분위기의 1주제는 이어지는 '감7화음'으로 떨어지는 나락에서 소름 끼칠 지경이었다. 2주제의 목관과 간만의 고요는 더욱 부각됐다. 10년 이상

경기필에 몸담고 있는 채유리 첼로 수석은 필두로 한 저현악(할로 소리를 내는 악기군) 연주자들이 잘했다. 발전부(Development) 첼로군의 독백은 아마도 이날 공연의 백미가 아닐까 싶다. 파현(破顯, 짝 막힌 현실에 돌파구를 내서 희망을 드러내는 일)으로 번역되는 'Durchbruch'의 장대한 팡파르는 벽을 뚫고 터져 나오는 느낌. 그래서 코랄도, 그 장엄한 D장조 코랄도 허무할 뿐이었던가.

3악장의 렌틀러(Ländler, 3박자 춤곡)와 도시 왈츠의 흐느적거림은 '호른 에피소드'와 절묘하게 공합을 이뤘다. 김형주 호른 수석연주자는 커튼콜에서도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그만큼 안정적이었다. '탄식 모티브'의 하강 곡선은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했다. 모든 양념 즉 렌틀러와 왈츠, 푸가, 탄식 모티브, 호른 에피소드가 버무러지는 3악장의 마지막은 어지러울 정도였는데 아슬아슬하게 어긋나는 대목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넘어갔다.

4악장의 미세함과 솜구치는 광기에서는 혼신의 노력이 감지됐다. 칸타빌레에 이어지는 후렴구에서 차곡차곡 쌓이다 폭발하는 현악기의 응집력은 대단했다. 중간부의 조바꿈 또한 교묘하고 변화무쌍했다. 다만 공연장 음향이 저현악기의 뽕뽕거림을 받쳐주지 못해 안타까웠다.

말러의 푸가가 제대로 구현된 5악장은 론도 주제와 푸가가 선명하게 구분됐다. 4악장 '아다지에도' 제2칸타빌레 주제를 춤으로 되살린 2주제는 좀 더 동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최후의 코다는 '암흑에서 광명으로'가 아니라 '미친 광란'이었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피날레였다. 환희보다는 도피적 낙관주의가 오히려 적절했다.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감동

경기필의 지휘자 계보는 구자범, 성시연, 마시모 자네티에 이어 김선옥으로 이어졌다. 이제 경기필은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해도 무방하다. 90명의 정단원은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구태의연함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성이 결집되니 감동이 전해지는 건 당연하다. 음악은, 연주는 이렇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두에 언급한 '기세'가 더 당당해지기를 바란다. 단원들의 사상과 감정으로 조화롭게 직조된 체제(경기필)가 만들어내는 그 기세 말이다.

유혁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공부했다. 음악 칼럼니스트로 음악 전문지와 신문, 잡지 등에 글을 기고한다. 경인방송 음악 전문 PD, 고양문화재단 공연기획팀을 거쳐 현재 전문음악살롱 클라하우스와 HDC그룹 포니정홀을 운영하고 있다.



책과 클래식이 만나다!

서가콘서트 書歌

소나기

이리 들어와. 비가 와.
비야 맞을수록 좋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08.21.(목) 19:30



INSIGHT

ART AND THE CITY

리옹, 시간이 포개진 도시 위에서

ATTRACTION

한일 공연 문화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공연의 앞날

ARTIST TALK

나는 '멈추지 않는' 무용수

경기도무용단 이채연

나는 '평범함의 특별함을 아는' 배우

경기도극단 이운

ON & OFF

SNS에서 세계로, 견고한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예술가들

ART SCENE

지적 허영: '트렌드'와 '태도' 사이



리옹,

시간이 포개진 도시 위에서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리옹(Lyon)은 관광 산업에서 흔히 미식의 도시로 조명되고는 한다. 특히 리옹의 전통 가정식을 일컫는 부송(Bouchon)은 프랑스 요리 중에서도 독특한 맛과 풍미로 유명하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면면을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리옹은 『어린 왕자』를 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고향이고, 최초의 영화를 만든 루미에르 형제의 실험적인 장소일 것이며,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의 성지이자 최대 규모의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일 것이다. 과거와 현대의 시간, 그리고 예술이 포개진 아름다운 도시와 만나보자.

글. 박다솔(공연예술 평론가, 드라마터그) |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 리옹

한 도시가 건축, 영화, 무용, 문학, 미술, 언더컬처, 텍스타일(Textile, 직물) 등 모든 장르에서 전설적인 인물, 상징적인 장소 혹은 세계적인 축제를 모두 갖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리옹은 고대 로마 유적에서부터 현대 디지털 예술에 이르기까지, 도시 안에 다양한 예술의 시간이 두껍게 층층이 쌓인 곳이다. 그리고 현재도 그 생동을 가득 뿜어내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렇듯 리옹의 도시 전체 지형과 구조가 시간의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지난 1998년 '리옹 역사 도심(Historic Site of Lyon)'이라는 이름으로 500헥타르(1헥타르가 10,000m² 크기)에 가까운 리옹 도심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바 있다.





45°45'36"N, 4°50'24"E

푸르비에르 고대 극장



푸르비에르 고대 극장에서 펼쳐지는 '푸르비에르의 밤'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

리옹을 처음 방문했던 날, 산책자가 되어 도시 곳곳에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새겨진 시간을 목도했던 기억을 돌이킨다.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발을 내디딜 때, 푸르비에르(Fourvière) 언덕에서 구시가지로 지나 신시가지로 들어설 때, 산책자는 연신 리옹이 지닌 과거의 시간을 거쳐 현재에 당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옮겨 시간의 겹을 이룬 건물과 그 역사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목격한다. 리옹을 발견하는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이 글의 여정은 푸르비에르 언덕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푸르비에르 언덕, 고대의 시간을 걷다

기원전 43년, 고대 로마 제국은 로마 최초의 도시를 켈트어인 '루그두눔(Lugdunum)'이라는 이름으로 건설했다. 이 지명은 '빛과 기술의 신(神)인 루그의 요새(언덕)'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언덕이 바로 리옹의 푸르비에르 언덕(Colline de Fourvière)이다. 로마 제국은 현재의 프랑스 영토를 포함하는 옛 갈리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육로와 수로가 남북과 동서로 뻗어나가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감시와 방어에 유리한 언덕 지형을 갖춘 리옹을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인 행정 수도로 선택했다.

도로가 정비된 현재도 푸니쿨라(Funiculaires de Fourvière, 산악 지형에서 효과적인 케이블 철도)를 타지 않고 언덕에 오를 때면 몇 걸음 떼지 않았는데도 금방 숨이 가빠오는 지경이니, 그 당시 요새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푸르비에르 언덕 위에 지어진 로마의 행정 수도는 언덕을 중심으로 시장과 주거 지역이 리옹을 가로지르는 손 강(江)과 론 강(江)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를 이뤘고, 이후 중세에 들어 도시가 점점 팽창하며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

이 언덕 위에는 19세기 말에 화려한 네오비잔틴식과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Basilique Notre-Dame de Fourvière)이 있다. '하늘 위의 성당'이라 불리는 이곳에 서면 탁 트인 파노라마 뷰로 리옹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대성당을 둘러본 뒤, 언덕 아래로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푸르비에르 고대 극장(Théâtre antique de Fourvière)을 마주하게 된다. 기원전 1세기 말에 건축된 이 극장은 푸르비에르 언덕을 지지대 삼아 기댄 형태로 지어졌는데, 객석이 반원형으로 이뤄진 고전적인 로마 극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 푸르비에르 고대 극장은 한 번에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프랑스 내 존재하는 로마식 극장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로마 시대 극장이기도 하다. 이곳은 로마 시민들을 위해 연극 공연을 상연하거나 시 낭송,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공 극장으로 기능했다.

푸르비에르 고대 극장은 로마 제국의 쇠망 이후 오랜 시간 채석장으로 사용되며 흙더미에 파묻혔지만, 1920년에 발굴되어 10년 넘게 복원 과정을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됐다. 그리고 1946년 여름, 리옹시가 이 극장에서 '푸르비에르의 밤(Nuits de Fourvière)'을 개최하며 고대 로마 극장의 시간을 현대로 잇기 위한 실험을 시작한다. 푸르비에르의 밤은 매년 6월부터 최대 8월까지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고대 극장에서 야외 공연을 올리는 축제이다. 초창기에는 고전 연극을 중심으로 기획돼 선보였지만 이후 오페라, 클래식 콘서트, 무용 등으로 장르를 확장했다. 현재는 퍼포먼스, 서커스, 대중음악 콘서트까지 다양한 양질의 공연을 폭넓게 소개하며 리옹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



리옹 구시가지의 트라볼

했다.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온 이곳에서 관객들은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로 달려 나가는 예술적 실험을 연신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리옹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조우하는 도시로 실재한다.

구시가지 골목에 새겨진 르네상스의 흔적

고대 극장을 빠져나와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가파른 경사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로 도착하게 된다. 언덕의 동쪽 기슭, 손 강의 서쪽 강변을 따라 형성된 리옹의 구시가지(Vieux Lyon)는 수십 세기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 부드럽게 마모된 자갈들이 좁고 긴 골목길 위로 수놓아져 있다. 리옹은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지리적으로는 육상과 수상 교통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오가는 사업가나 상인들 또한 많았다. 그 영향으로 무역과 금융업이 크게 번성했다. 이러한 영향은 구시가지의 건축물과 공간 곳곳에서 잘 드러난다.

리옹 구시가지의 건축물 중 다수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영향을 받아 르네상스풍으로 지어졌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들을 누비며 돌아다니다 보면, 트라볼(Traboules)이라고 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된다.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리옹은 유럽 최대의 비단 생산 도시였고, 비단과 같은 고급 직물을 파리로 대량 유통했다. 당시 비단 장인들은 비단의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비나 눈을 피해 직물을 운반할 요량으로 도심의 건물들을 가로지르는 직통 통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거리와 거리 사이의 안뜰이나 긴 복도, 석조 아치나 나선형 계단 등을 이어 만든 트라볼이다.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것인 만큼, 외관상으로는 트라볼의 존재 여부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게 특징적이다. 현재까지도 리옹 내에 500여 개 이상의 트라볼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트라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들에 의해 다시 활발히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리옹은 비단 산업만큼이나 인쇄업의 번영을 누린 곳이기도 하다. 15세기부터 유럽 각지에서 이주해 온 인쇄업자들이 정착하며 종교서, 인문학,



리옹 무용의 집

최초의 여성 시집까지 다양한 장르의 출판물을 쏟아냈고, 이 덕에 리옹은 프랑스 최대 인쇄 도시가 되었다. 수많은 인쇄소가 있는 만큼 비밀 전단이나 선전물의 유통 또한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레지스탕스와 연락원들은 이 트라불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무기를 은닉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현재 몇몇 트라불은 도시 투어뿐만 아니라 전시나 '이머시브 공연'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여전히 우리에게 은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금융과 무역, 인쇄업의 발전은 리옹의 문화예술이 빠르게 발전한 것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은행가, 상인, 귀족들은 상업으로 축적한 부를 예술 후원 자금으로 사용했고, 무역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예술 작품이 빠르게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리옹에서는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역시 발달했다. 구시가지에는 리옹의 토착 손인형극인 '기뇰(Guignol)'과 더불어 전 세계 인형극을 수집해 놓은 '가다뉴 박물관(Musée Gadagne)'이 있는데, 기뇰은 당시 견직물 노동자들을 위로하던 유흥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기뇰 공연도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과 트라불을 활용해 이동식으로 이루어지곤 했다.

“

리옹은

산과 평야, 육체와 지성이 모두 존재하는 도시이다.

나는 생텍쥐페리에게서 리옹을 발견한다.

”

프레스킬과 신시가지, 현대 예술이 흐르는 곳

구시가지지를 벗어나 손 강 다리를 건너 론 강 방향으로 향하면, 강과 강 사이에 조성된 지역인 프레스킬(Presqu'île)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 바로 여기부터 론 강 너머까지가 근대 이후에 형성된 신시가지에 해당한다. 18세기에 건축해 현재는 다양한 현대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셀레스탕 극장(Théâtre des Célestins)이나 장 누벨이 설계한 리옹 국립 오페라 극장, 고전 회화 중심의 리옹 미술관, 리옹 현대미술 비엔날레가 열리는 리옹 현대미술관, 과거 설탕 창고를 개조해 전시장으로 만든 쉬크리에르(La Sucrerie, '설탕 공장'이라는 뜻), 국립 무용 전용 극장인 '무용의 집(Maison de la Danse)' 등 유럽 현대 예술에 중추 역할을 하는 리옹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 모두 손 강 너머인 이곳 신시가지에 위치한다. 건물의 나이도, 담아내는 장르도, 추구하는 지향점도 제각각이라 그 다채로움이 리옹의 현재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 도시의 미래를 궁극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축제를 빼놓고는 리옹의 문화예술을 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푸르비에르의 밤 외에도 리옹에는 루미에르 영화제, 리옹 현대미술 비엔날레, 리옹 댄스 비엔날레 등 많은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축제는 도시 전체가 미디어 아트와 조명으로 뒤덮이는 '빛 축제(Fête des Lumières)'이다.

1643년, 흑사병 전염 위기에 놓인 시민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기적처럼 흑사병이 리옹을 비껴가게 된다. 1852년 가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 금동상을 설치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홍수로 제막식을 12월 8일로 연기하게 된다. 그리고 제막식 당일 모든 시민들이 집 창가나 상가에 촛불을 밝히며 'Merci Marie!(감사합니다, 마리아!)'라고 기도하는 의식이 이후 도시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9년, 리옹시는 이러한 풍습을 살려 12월 8일 전후로 대성당, 광장, 극장, 기차역 등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과 공간에 조명·영상·레이저 등을 활용한 대규모 미디어 파사드 작업이나 LED 쇼, 조명 등을 폭발적으로 설치하는 빛 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빛 축제가 개최되는 나흘 동안 이 도시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최대 400만 명의 관람객이 모여드는데, 이들은 신기술로 설계된 가장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조명을 바라보는 동시에 리옹 시민들이 무려 400여 년 전부터 전해 온 오랜 감사 인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이 도시가 2천 년의 역사를 낳지 않게 만든 것처럼, 도시가 지나온 시간을 잊지 않게 만든 것처럼.



빛 축제 기간 중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

빛 축제를 맞아 벨쿠르 광장의 루이 14세 기마상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

리옹, 시간을 유영하는 도시

산책을 마치며, 리옹의 심장과도 같은 벨쿠르 광장에서 걸음을 멈춰 본다. 광장 끝에는 『어린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생텍쥐페리의 동료 조종사이자 친구였던 베르나르는 생텍쥐페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리옹은 산과 평야, 육체와 지성이 모두 존재하는 도시이다. 나는 생텍쥐페리에게서 리옹을 발견한다.”

리옹의 이 다양한 풍경 속에서, 길목마다 시간이 유영하는 도시에서 생텍쥐페리는 결국 『어린 왕자』를 그려낼 수 있었던 걸까, 라고 농담 같은 호기심을 가져본다. 이 도시에 차곡차곡 포개지고 있는 현재를 묵도하며, 그것이 가닿을 미래를 상상하며.

박다솔

공연예술 분야 평론가, 드라마티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한 뒤, 프랑스 리옹2대학에서 공연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연예술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와 말하기로 활동하고 있다.

한일 공연 문화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공연의 앞날



일본의 다카라즈카 대극장 내부 좌석(출처: 다카라즈카 가극단 홈페이지)

아사히신문 문화부에서 공연 파트(연극·뮤지컬)를 담당한 적이 있다.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약 1년 반 동안 매일 같이 극장에 가서 공연을 관람했다. 그전에 이미 한국 연극과 뮤지컬 팬이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일 양국의 공연 문화, 그 안에 담긴 인식의 차이가 보였다.

글. 나리카와 아야(작가, 전 아사히신문 기자)

반응이 큰 한국 관객, 조용히 보는 일본 관객

한국 연극·뮤지컬의 팬이 된 계기가 된 작품은 극단 학전의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다. 2002년 여학연수로 한국에 왔을 때 봤다. 서울역 주변과 지하철을 오가는 무대, 승객들의 다양한 사연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객석과의 일체감이 인상 깊었다. 이때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한국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어도 노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지인이 놀러 오면 함께 <지하철 1호선>을 보곤 했다. 몸소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내가 일본 여행객을 자주 데리고 가는 공연은 <난타>다. 대사보다는 퍼포먼스로 내용을 전달하고, 사물놀이 리듬을 바탕으로 하기에 한국 전통 예술의 재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아이와 어른 누구나 좋아하는 공연이어서 주변 일본인에게 자신 있게 추천했다.



2005년 또다시 한국에 유학 온 나는 교환학생으로 성균관대에 다녔다. 대학로가 가까웠던 데다 연극을 하는 친구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연극과 뮤지컬을 자주 보러 다녔다. 유명 배우가 아니어도 연기력과 노래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많았고, 관객의 호응도 좋았다. 일본에 귀국해 아사히신문에 입사한 후에도 휴가로 한국에 오면 꼭 연극과 뮤지컬을 봤다. 아사히신문의 문화부에서 연극·뮤지컬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많은 공연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한국과 일본의 공연 관련 차이점이 느껴졌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관객의 반응이다. 한국 관객에 비해 일본 관객은 조용히 관람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공연 중 관객의 웃음 소리나 놀란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일본에선 대부분 조용히 본다. '주변에 폐를 끼치면 안 돼'라는 일본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대학로의 중소극장에서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객석에 말을 걸거나 무대 위로 관객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일본에선 그런 공연은 드물다. 한국 공연은 관객을 작품에 참여시켜 함께한다고 느끼게 한다.

한국과 일본의 연극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낭독 공연이 있다. 일본 희곡을 한국어로, 한국 희곡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낭독 공연으로 서로 소개하는 것이다.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 <저편의 영원>이라는 일본 희곡을 한국어로 낭독 공연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진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연출이었는지 배우의 애드리브였는지 웃음이 터지는 장면이 많았다. 한국어판을 본 원작자 오사다 이쿠에(長田育恵)는 "관객의 반응이 커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반면 2016년 한국 희곡 <인류 최초의 키스>의 일본어판이 도쿄에 위치한 극단 청년좌(青年座)의 극장에서 공연했을 때 원작자 고연옥 씨는 "한국에서는 관객들이 많이 웃었는데 일본 관객들이 조용해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일본 관객들이 그 공연을 재미없어 해서 조용히 본 것은 아니다. 한국 관객들이 무대의 배우들과 함께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 관객들은 공연 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런 한국 관객의 특징은 일본의 일부 공연 문화에 유입되기도 했는데, 이는 케이팝 콘서트의 영향이다. 공연에서 관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떼창'은 일본에서도 'テチャン'이라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해 널리 퍼지고 있다.

감정의 폭과 음역의 폭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뮤지컬이 일본 무대에 자주 오르고 있다.



2018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포스터(출처: 남산예술센터)



<인류 최초의 키스> 일본 공연 포스터(출처: 극단 청년좌 스튜디오 홈페이지)



<프랑켄슈타인> 일본판 공연의 배우들(출처: 극단 토호 홈페이지)

66

공연에서 관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떼창’은
일본에서도 ‘テチャン’이라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해
널리 퍼지고 있다.

99



<베르사유의 장미> 한국 공연(출처: EMK뮤지컬컴퍼니)

라이선스를 수출해서 일본어판으로 만들어진 공연이 대부분이다. 2017년 1월 일본어판 <프랑켄슈타인>이 도쿄에서 공연했을 때 주연 배우 나카가와 아키노리(中川晃教)를 인터뷰한 적 있다. 일본에서는 노래 잘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뮤지컬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나카가와는 <프랑켄슈타인>의 넘버들을 듣고 있으면 “한국의 열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예를 들어 극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한국 공연에서는 절규하듯이 노래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울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국 원작의 공연을 할 때에는 내가 가진 음역을 전부 써야 한다. 그만큼 감정의 기복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나카가와가 가지고 있는 음역을 풀로 가동해야 한다면 일본 다른 뮤지컬 배우들에겐 한국 원작 공연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도 대개 일본 사람에 비하면 감정의 기복이 큰 편이다. 일본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작은 소리로 시작해 음량을 올렸다가 폭발적으로 소리가 커지는 후반 부에는 다시 음량을 낮추게 될 때가 많다. 한국 뮤지컬 넘버들도 조용히 시작했다가 절정에 달할 때는 극장 전체를 압도하는 큰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한국 뮤지컬의 큰 매력 중 하나다.

그래서일까. 일본에서도 한국 뮤지컬 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 가을 한국 창작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를 서울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원작이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원작의 일본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다카라즈카 가극단(宝塚歌劇団)의 <베르사유의 장미>가 특히 유명한데, 한국판은 새롭게 만든 전혀 다른 작품이었다. <베르사유의 장미>는 한국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았고 원작자 이케다 리요코(池田理代子)가 한국판 뮤지컬을 직접 보러 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한국 뮤지컬을 보러 한국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돌’이다. 한국 아이들이 뮤지컬 작품에 출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억나는 것은 2015년 1월 대학로에서 본 뮤지컬 <그날들>이다. 이 작품은 고(故) 김광석의 노래들을 엮어 만든 뮤지컬이다.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는 팬이었던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공연을 보러 갔다. 객석에서는 일본어가 많이 들려왔다. 알고 보니 주연 배우 중 한 명이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이었다. 원래 슈퍼주니어 팬은 아니었지만, 그 공연을 보고 나 역시 규현의 노래에 반하게 됐다. 케이팝과 한국 뮤지컬은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관계다.



효고현에 위치한 다카라즈카 대극장(출처: 다카라즈카 가극단 홈페이지)

일본 대규모 극단 다카라즈카와 시키(四季)

일본에는 대규모 뮤지컬 극단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극단 시키(劇団四季)'가 있다. 두 극단 모두 전용 극장을 가지고 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2014년에 100주년을 맞이한 여성 뮤지컬 극단이다.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창단된 가극단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여성가극단이기도 하다. 일본을 대표할 만한 인기 있는 극단으로 규모 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크다. 소속 배우 전원이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남성 역할도 여성이 맡는다.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대극장과 도쿄의 다카라즈카 극장처럼 2,000석 이상 규모의 전용 극장을 두고 매년 9가지 작품을 한 달가량 공연한다.

당시 아사히신문의 문화부 기자였던 나는 다카라즈카 가극단 담당이어서 1년 동안 그들의 공연을 꽤 많이 봤다. 여성만 연기하는 것도 특별하지만 '라인댄스'나 스타가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피날레 등 독특한 볼거리가 많았다.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2023년 연간 관객 수는 220만 명에 달했다.

ㄷ

한국에서도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배우가 많아진다면, 드라마나 영화의 팬들이 무대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공연계 전체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ㄹ

극단 시키는 1953년 설립 이후 디즈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알라딘>과 <라이언 킹> 같은 디즈니 원작 공연은 물론 <캣츠> 같은 대형 공연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한국 출신 배우들도 활동하고 있다. 다카라즈카와 시키는 배우 양성 기관의 역할도 하기에, 이들 극단 출신의 유명 배우들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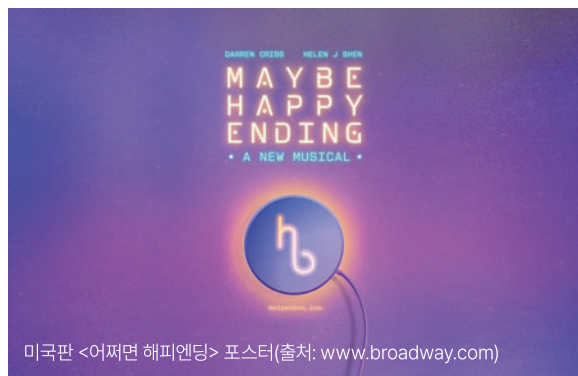
반면 한국에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이나 시키만큼 큰 규모의 뮤지컬 극단은 없는 것 같다. 그보다 한국 뮤지컬은 작품마다 배우들이 새롭게 모여 공연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국에도 뭔가 특징 있는 극단이 나타나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tvN 드라마 <정년이>(2024)를 통해 알게 된 '여성국극'에 관심이 생겼다. 판소리라는 전통 예능의 매력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여성국극은 외국인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인기 배우의 무대 활동

일본에서 공연 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연급 배우들이 꽤 많이 연극 무대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연 기획 제작사 '노다 맵(NODA·MAP)'의 운영자이기도 한 일본의 대표적인 연극인 노다 히데키(野田秀樹)가 각본과 연출을 맡은 작품이 무대에 오를 경우에는 출연 배우가 대단히 화려하다.



<게키린>에 출연한 마츠 다카코, 나가야마 에이타, 이노우에 마오, 아베 사다오 (출처: 노다 맵 홈페이지)



미국판 <어쩌면 해피엔딩> 포스터(출처: www.broadway.com)

내가 취재한 2016년 작품 <게키린(逆鱗, '역린'이라는 뜻)>에는 마츠 다카코, 나가야마 에이타, 이노우에 마오, 아베 사다오 등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는 일본 유명 배우들이 여럿 출연했다. 한국에서도 주연급 배우 한두 명이 출연하는 연극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주연급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한국은 영화와 드라마 주연으로 활약하는 배우들이 무대 출신인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와 연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일본은 유명 배우들이 무대와 스크린, TV를 오가며 활동해서 연극도 꽤 인기가 많다.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뉴욕 브로드웨이로 진출해서 토니상 6관왕을 달성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일본에서는 <어쩌면 해피엔딩>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배우 전미도와 정문성이 출연했던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 영화나 드라마로 익숙한 배우가 나오는 것은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는 큰 계기가 된다. 한국에서도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배우가 많아진다면, 드라마나 영화의 팬들이 무대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공연계 전체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나리카와 아야(成川彩)

일본 고베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했고, 오사카대학교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배워 한국어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사히신문에서 문화 담당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을 취재했고, 퇴사 후 한국으로 건너와 다양한 매체에 기사와 칼럼을 집필 중이다. 지은 책으로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 『지극히 사적인 일본』 등이 있다.

나는 '멈추지 않는' 무용수

경기도무용단 이채연



올해 경기도무용단에 입단한 이채연은
어릴 때부터 말보다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했다.
2024 비엔나 국제 무용 콩쿠르 특별상,
한국전통춤협회가 주최한 제1회 춤 대경연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그는
이제 경기도무용단에서 '이채연'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더 넓게 파내는 중이다.
'깊게 파려면 먼저 넓게 파기 시작하라'는 말이 있다.
오늘의 넓이가 내일의 깊이를 낳을 것이라는
위로 같은 글귀처럼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르며
내일의 깊이를 꿈꾼다.

글. 편집실 |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Q. 올해 경기도무용단에 입단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무용을 전공해 이런저런 경험을 쌓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경기도무용단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자란 이유도 있겠지
만, 무엇보다 한국무용의 전통성을 지키면서도 늘 새롭고 감각
적인 경기도무용단의 작품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합격
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쳤어요. 그간 이곳의 무대
를 꿈꾸며 쌓았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라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발레를 먼저 시작했다고 하죠. 원래 무용을 좋아했나요?

어릴 때부터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레 몸을 움직이는 아이였어
요. 처음 접한 무용은 발레였는데요, 공연도 했거든요. 작은 무
대에 서서 처음으로 조명을 받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무용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무용 선생님께서 제게 한국무용을 권하셨습니다. 한국무용과 발레는 무용수의 표현력과 감성의 결, 움직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감성적이고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게 좋았던 제 성향을 보고 그렇게 권유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무용은 움직임과 호흡, 음악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 보니 망설였지만 수업을 들으며 그 매력을 알게 됐죠. 그 안에 감정과 삶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담아낼 수 있는 예술이 한국무용이라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춤이 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Q. 관객 입장에서 경기도무용단의 공연을 본 적 있나요?

올 4월에 본 기획공연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공연을 보며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무대 위 선배님들이 너무 멋졌어요. 움직임 하나하나의 집중도가 높았고, 절제된 동작 속에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거든요. 자신만의 감정과 해석을 담아서 추고 있다고 생각했죠.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김경숙 예술감독님의 방향성도 인상이 깊었고요. 음악과 안무, 조명, 무대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어요.

Q. 그 무용단의 일원이 됐으니 기대되는 점이 많겠어요.

'무용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정기 공연은 물론이고 창작 무대, 기획 공연, 지역 문화 나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예요. 센터의 연습실과 무대 환경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연습실 공간이 넓고 바닥 컨디션이 항상 좋아서 무용 동작을 할 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채로 몰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너무 따뜻하시다 보니 무용단의 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후배를 세심하게 챙기며 아껴주는 분들이거든요. 입단 전에 무용할 때는 혼자 무대에 설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선배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같이 호흡하는 무대'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체감하고 있어요.

Q. 경기도무용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연도 지속하고 있죠. 해외 관객을 만날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해외 관객과 예술로 만나려면 무용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테크닉을 보여준다기보다 무용수가 자기만의 감정 언어로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을 전해야 하죠. 무용은 말 없는 예술이잖아요. 몸짓만으로 세계 여러 관객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작품 측면에서 보자면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만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시대의 감수성을 어떻게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동시에 내가 아직 모르는 감각'에도 늘 마음을 열어두는 유연한 예술가이고 싶어요.

Q. 한국무용만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흔히 한국무용이라고 하면 느리고 잔잔한 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한국무용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결이 있어요. 섬세하게 절제할 때도 있고,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때도 있죠. '잔잔한 호수 같기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기도 한 춤'이 한국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채로운 움직임에 담긴 다양한 결의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분명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연스레 어루만져줄 거예요.

Q. 지난 6월 경기도무용단에서 첫 공연을 가졌지요?

맞아요. 6월 28일 <영원의 춤 유산의 빛>에 올랐어요. 입단 후 첫 무대에 설레고 감사한 마음이었죠. 부채를 활용한 창작 한국무용을 선보였는데, 제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에 관심이 많아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나는 ()한 예술가'라는 질문에 빈칸을 채워 주신다면요?

'멈추지 않는' 예술가라고 답하겠습니다. 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임의 예술이지만 저는 무용수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날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정도 매번 다르고요. 단순히 잘 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와 진심으로 연결된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평범함의 특별함'을 아는 배우

경기도극단 이윤



노래를 좋아했다는 고등학생 시절 이윤은 뮤지컬을 꿈꿔 연기 입시 학원에 갔다가 연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특별해지고 싶고 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살아내는 일상이, 그 평범해 보이는 날들이 있어야 '이윤'이라는 사람이 특별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평범함이 지닌 특별함을 마음에 담고 올해 경기도극단과 함께하게 된 배우 이윤을 만났다.

글. 편집실 |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Q. 입단 전에도 다양한 연극에 출연했더군요. 어떻게 경기도극단에 합류하게 됐나요?

주변에서 경기도극단 공연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팔로잉하고 있다가 신입 단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죠. 무대에서만 보던 선배들과 함께 연기를 하게 돼 너무 행복합니다.

Q. 입단 전 주요 활동 중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을 극화한 작품에서 '뫼르소' 역을 맡은 게 눈에 띄더군요.

연출자가 문학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헤르만 헤세 작품을 극화한 <데미안>도 함께 공연했어요. 제가 주인공 싱클레어 역이었죠. 덕분에 좋은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준비 과정이 아주 즐거웠던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Q. 고등학교 때 연극 연기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네, 처음에는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뮤지컬을 고려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연기를 배우다 보니 연극과 연극 연기의 매력이 와닿더군요. 물론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뮤지컬도 매력 있어요. 하지만 일상 언어의 리듬을 기반에 두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는 연극만의 매력이 크게 느껴지더군요.

Q. 1990년 창단한 경기도극단은 웰메이드 연극의 메카라 불리죠. 극단 작품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본 작품은 2023년 공연한 <죽음들>이었어요. 당시 서울 공연들을 챙겨보느라 바빴지만, <죽음들>이 유명하다 보니 결국 못 참고 경기도로 달려와 봤었죠. 이후에 <맥베스>, <단명 소녀 투쟁기> 등을 보며 경기도극단은 도화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배우들의 연기나 연출 등을 보면 어떤 작품이든 잘 표현해내는 조화로운 분들이라 느껴졌거든요.

Q. 경기도극단에 입단해 기대하는 점들은 무엇인가요?

관객으로서 동경해온 선배님들과 같은 무대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설레는 일이에요. 연습실이 생겼다는 점도 좋아요. 그전에는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는 좋은 시설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니까요.

Q. 요즘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의 예술로 해외 관객을 사로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많이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친숙해질수록 세계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특징이나 양식이 해외 관객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낯설이 익숙해지면 곧 개성이나 특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음식이나 케이팝이 그렇듯 말이지요.

Q. 본인 스스로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한 예술가다’라는 질문에 빈칸을 채워주신다면요?

예술관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게 생각날 법도 한데, 그럼에도 저는 ‘평범한, 소박한 예술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창 연기를 시작할 무렵에는 정말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고 싶고, 튀고 싶어 했어요. ‘평범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삶을 살아가고, 또 연기를 지속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요즘에는 제가 늘 마주하는 일상의 평범함이 존재해야 결국 그 위에 특별한 가치가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실은 특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특별한 연극도 결국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Q. 입단해서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창작 희곡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한 낭독극 <버닝: 타오르는 삶>에 출연했습니다. 연말에는 <민중의 적>에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극작이나 연출에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관심은 많은데 아직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을 쓰는 일이 그래요. 뜻이 맞는 사람들과 글을 쓰고 여러 예술 창작 활동을 경험하며 언젠가는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인극의 극작과 연출, 연기까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Q. 이윤 배우가 만든 연극은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지네요.

세상에 없는 양식의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상상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작품으로 만든다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계곡에 무대 세트를 지어 공연하는 거죠. 관객과 배우의 거리를 좁혀 마치 마당놀이 같은 느낌이 나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생각 중입니다.

Q. 연극 관람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연극의 매력을 설명한다면요?

믿음과 약속이요. 예를 들어 배우가 무대에 쓰러져 숨이 멎는 연기를 하면 관객은 그 인물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전동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다들 장면이 지하철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연극의 이런 모든 상황은 창작자와 향유자가 무언의 약속을 맺고,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 믿음이 나아가 마음을 흔드는 감동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겠죠. 그게 진짜 연극의 매력 아닐까요?

SNS에서 세계로, 견고한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예술가들

우리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대화하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나눈다. 본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타의에 의해 화제의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이런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작가들이 작업용 계정을 별도로 운영할 만큼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소통·홍보 방식은 예술계의 견고한 장벽을 넘어 본인만의 가치를 동시대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SNS에서 시작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 곳곳의 예술가들을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FROM SOCIAL MEDIA TO THE WORLD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 명의 그래픽 아티스트
장 줄리앙(Jean Jullien)

몇 년 전부터 한국 셀럽의 SNS에 자주 등장하는 그래픽 아티스트 장 줄리앙은 일러스트 작품뿐만 아니라 패션, 출판, 생활용품, 식음료, 레저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기발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심플하면서도 위트 넘치는 작품 스타일은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각국을 대표하는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더 유명세를 탔다.

www.instagram.com/jean_jullien

(이미지 출처: Jean Jullien)



카우스와 빌리 아일리시도 반한 목탄화
애나 박(Anna Park)

애나 박은 팝아트의 거장 카우스가 그의 그림을 SNS에 공유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그는 뉴욕 예술 아카데미 재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의 앨범 표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 <뱅크> 포스터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 밖에 할리우드 유명 인사와 눈 밝은 컬렉터들이 그의 그림에 열광한다. 미국 특유의 상업적인 이미지를 한지 위에 먹색으로 그려내 큰 인기를 끄는 그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한국 등 전 세계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www.instagram.com/annaparkart

(이미지 출처: Half Gallery)





눈이 큰 아이 하비에르 카예하(Javier Calleja)

스페인 출신의 하비에르 카예하는 '눈이 큰 아이'라 불리는 캐릭터를 통해 특히 아시아권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눈이 큰 아이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이 캐릭터는 특히 SNS를 중심으로 퍼지며 큰 인기를 얻었다. 커다란 눈망울에서 발산되는 천진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은 보는 이를 반하게 만든다.

www.instagram.com/javicalleja

(이미지 출처: www.juxtapoz.com)



우주를 정복하고 싶은 예술가 스페이스 인베이더(Space Invaders)

고유의 픽셀 아트 스타일로 이름을 떨친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은 채 활동한다. 예고 없이 나타나 비밀리에 작품을 설치하고,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침략(Invade)'이라고 부르는 이런 활동을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84개 도시에 4,200점이 넘는 작품이 설치된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그의 팬들은 작품을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도 한다. 전용 앱(플레이스 인베이더스)을 통해 사진을 인증받고, 얼마나 더 많은 작품을 발견했는지 서로 경쟁하는 식이다. 2024년에는 한국의 서울과 대전 등지에 태극기와 무궁화 등을 형상화한 작품을 설치했다.

www.instagram.com/invaderwashere

(이미지 출처: www.space-invaders.com)



인스타그램으로 주목받은 낭만주의자 론 히크스(Ron Hicks)

인상주의와 재현예술이 연상되는 작품을 그려내는 작가 론 히크스. 그는 편안한 모습, 친밀한 순간,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연인 등 주로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장면을 그려낸다. 그의 작품은 오래전부터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퍼지며 인기를 얻었다.

www.instagram.com/ronhicksart

(이미지 출처: www.ronhicks.com)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청춘의 초상 이목하

평면회화를 기반으로 유채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이목하는 글로벌 아트 플랫폼 아트시(Artsy)가 발표한 '2025년 차세대 현대미술을 선도할 10명의 아티스트'에 선정될 정도로 주목받는 작가다. 그의 작품은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전시되기도 했는데, SNS에 올라온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을 그리는 게 특징이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사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뒤 계정 주인에게 연락해 소정의 사례비를 내고 인물을 그림 그릴 권리를 구입하는 식이다. 그림 분위기도 독특하다. 특유의 명암과 그림자가 미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런 그림에는 청춘의 기쁨과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www.instagram.com/leemokalee

(이미지 출처: chapterii.org/ko/artists/59-lee-moka)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서 자신의 지적 활동을 뽐내는 일이 늘었다.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 한다. 책을 읽고 필사를 하는 것은 물론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고서 인증샷을 남기는 사례가 그렇다. 누군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누구는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도 한다. 김주원 큐레이터의 글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본다.

글. 김주원(큐레이터, 한빛교육문화재단 이사)

지적 허영: '트렌드'와 '태도' 사이



안니발레 카라치의 <비너스와 아도니스, 큐피드>, 1595년경. 에로스는 영어로 '큐피드(Cupid)'라고도 불린다.

에로스 탄생 비화와 지적 허영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가난과 궁핍의 신(神)인 페니아(Penia)는 MZ 세대의 지적 이미지 소비와 관련한 논쟁적 이슈 '지적 허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사실 페니아에 대한 신화는 플라톤의 고전적 철학서 『향연(饗宴, Symposium)』이 전하는 이야기가 유일해 많은 이들에겐 낯선 이름이다. 다만 아리스토파네스, 헤로도토스, 플루타르코스, 필로스트라투스 같은 고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므로 미학, 철학, 고전문학 애호가나 전공자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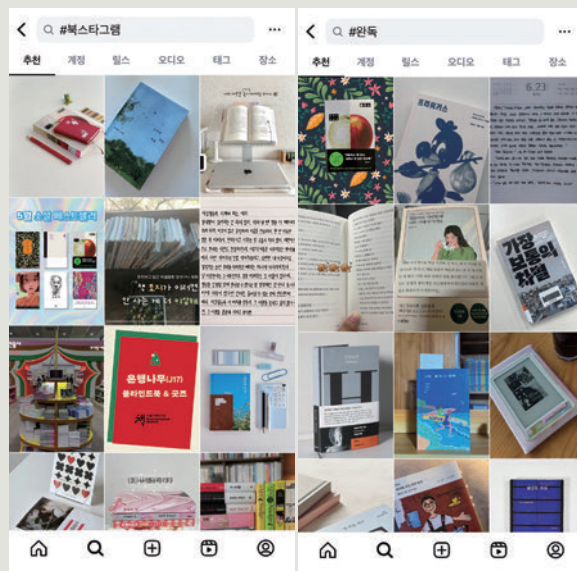
페니아 이야기는 플라톤의 『향연』에 따르면, 아프로디테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날에 벌어진다. 가난과 궁핍의 신인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프로디테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을까? 페니아는 가난과 배고픔에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선별해 손님을 초대할 생일 잔치집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때 풍요와 술책의 신 포로스(Poros)가 술에 취해 정원에서 잠박 잠든 것을 보았다. 이때 페니아는 생각했다.

'지금의 배고픔보다, 가난과 궁핍이라는 내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지? 풍요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생일 잔치에든 죄다 초대받을 수 있을 텐데! 내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야. 그렇다면 포로스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페니아의 선택은 포로스에게 다가가 몰래 그와 동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사랑의 신 에로스(Eros)였다. 그리고 보면 에로스는 궁핍과 풍요라는 이중의 혈통을 지녔다. 즉, 그의 가계(家系)는 그가 결핍된 존재인 동시에 그 결핍을 풍요로 채우는 역동적인 힘을 지닌 존재임을 상징한다. 에로스는 아름답지 않기에 아름다운 것을, 지혜롭지 않기에 지혜로움을 늘 추구한다. 결핍된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므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고대 신화 속에서 인격화된 신 페니아와 그의 자식 에로스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지적 허영'에 대한 청년세대의 공공연한 과시와 현상은 어떤 긍정과 부정을 안고 있는 것일까.

'트렌드'와 '태도' 사이

최근 들어 이 시대의 중심 세대인 청년들, 즉 MZ 세대 사이에서 '지적 허영'이라는 유행 같은 태도를 둘러싼 긍정, 혹은 부정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화 체험을 공유하는 최근 분위기(출처: 인스타그램 갈무리)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적 허영'은 꼭 짙어 같은 용어로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늘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확인하건대 이는 근대 이후 세계가 바라보는 '가치' 혹은 '중심'과 관련이 있다. 잘 알다시피 선형적 위계(Linear Hierarchy)가 존재했던 사회의 정치·경제·철학 구조는 위계의 가장 상위 계층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도달해야 하는 가능성이 었다.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을까? 1989년 인터넷(WWW)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개발·보급되기까지 사회구조가 엄청난 가속도로 급변·이동·해체되고 있지만, 그 양상만 변화할 뿐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최근의 몇몇 사례는 교훈적이다. 지난해 10월,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 문학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이 소식은 '나'를 표현하는데 진심인 MZ 세대를 사로잡았고, 이는 '텍스트힙'이라는 독서 열풍으로 이어졌다. 텍스트힙은 '텍스트(Text)'와 세련되고 개성 있다는 뜻의 은어 '힙(Hip)'을 결합한 신조어로, 독서를 '힙'하게 여기며 독서 인증샷과 함께 #북스타그램 #디지털독스 #완독 같은 해시태그를 내거는 현상이다. 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드에 책 사진이나 책 읽는 사진, 자신이 공감한 문장 등을 올려 인증하는 행위 모두가 이에 속한다. 책의 문장들을 직접 종이에 써서 인증하는 필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독서 유행에 대해 많은 사람은 그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즉 '지적 허영'으로 있어 보이는 척, 교양 있는 척하기 위한 자기 과시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술계에선 이미 5, 6년 전부터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기 과시적 '지적 허영'의 SNS 인증 행위가 일반화됐다. 그것은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 같은 대중문화 아티스트들의 SNS 행보가 갖는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 RM은 미술작품 애호가로 국내외 주요 뮤지엄, 갤러리 등의 전시 관람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RM의 전시 관람이나 작품 수집은 그의 SNS 행보로 동선이 확인되면서 그를 모방하는 대중의 인터넷 밈(Internet Meme)이 유행처럼 퍼졌다.

대중은 RM이 업로드한 SNS 속 전시 작품 앞에서 동일한 각도로 사진을 찍고 이를 자신의 SNS 피드에 인증하며 해시태그를 내건다. 실제로 미술계 내부에선 RM이 관람한 전시와 관람하지 않은 전시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 정도다. 관람객 수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RM의 전시 관람은 전시를 기획한 뮤지엄이나 갤러리 측에선 반길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뮤지엄, 갤러리 등은 전시 기획의 필수요건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포토존 마련 등의 전략적 디스플레이나 전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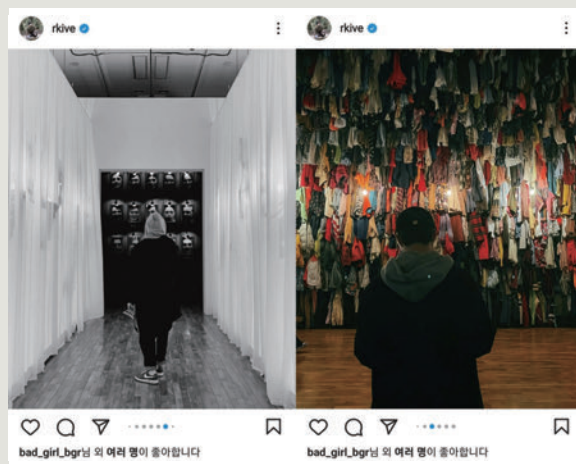
‘이미지’ 시대를 대하는 자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 개인의 문학세계는 물론 한국어와 한국 문학 전체가 ‘세계문학’으로서의 미학적·인문학적 권위를 부여받은 의미 있는 사건일 것이다. 한국인 최초의 수상인 만큼 국민 전체의 집단적 자긍심을 자극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세계문학’을 집필할 정도의 인문학적 토대를 갖춘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의식은, 노벨상 수상 즉시 ‘힙’한 한국어(모국어)로 쓰인 ‘힙’한 수상작을 독서하는 인증을 함으로써 지적(知的) 트렌드를 이끄는 힙한 ‘자신’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텍스트힙 현상을 둘러싸고 소위 ‘인싸’들의 자기과시 수단일 뿐이며 ‘지적 허영’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성인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최근 상황에서 ‘텍스트힙’ 유행이 인증샷 이상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질 바라는 기대도 상당하다.



프리즈 서울 2025를 관람 중인 시민(출처: 프리즈 서울 2025 홈페이지)



RM의 관람 인증샷(출처: 인스타그램 갈무리)

얼마 전 여러 뉴스를 통해 보도된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 논란은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첫 시작 지점을 뜻하는 ‘시발점(始發點)’을 욕으로 이해한다거나, ‘족보(族譜)’를 ‘족발보쌈세트’로, 머리카락을 뜻하는 ‘두발(頭髮)’을 ‘두 다리’로 이해하는 등 여러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의 원인은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다 사용을 1순위로 꼽는다.

BTS RM의 미술 애호에 대한 MZ들의 밈 유행 및 이미지 모방 현상은 근대적 의미의 뮤지엄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문화 예술 향유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새로운 예술 향유층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프리즈 서울 2025’ 같은 국제 아트페어의 새로운 컬렉터 세대로 부상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밈으로 시작된 해시태그, 인증샷 등 트렌드 행위가 예술작품에 대한 취향과 ‘태도’로 변화된 것이다.

숏폼, 밈 등 짧은 글과 짧은 영상이 범람하는 이미지 폭증의 시대에 책을 읽고 미술작품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의 결핍이 ‘풍요’임을 알았던 페니아의 욕망과 결심은 태생적으로 ‘풍요’와 ‘궁핍’ 모두를 지닌 사랑의 신 에로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있어 보이는 척, 교양 있는 척, 트렌드를 리드하는 ‘인싸’처럼 보이기 위한 과시적 ‘지적 허영’은 흥내 내기로 끝나기에 십상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밈으로만 소비되는 실존을 거부하고 자신의 결핍을 아름다움으로 전회(轉回)하려는 ‘태도’로서의 ‘지적 허영’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 폭증의 시대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김주원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CCA 기타큐슈 초청 펠로우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GGAC

STORY

ZOOM IN

그들이 함께 만드는 감동의 모양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 한혜지 대리, 박준영 주임

GGAC NEWS

CALENDAR

EPILOGUE



그들이 함께 만드는 감동의 모양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 한혜지 대리, 박준영 주임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의 박준영 주임(왼쪽)과 한혜지 대리(오른쪽)

2024년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창단식을 가진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이 장애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이다. 그들은 '함께 만드는 예술'을 지향한다. 단원 각자의 성장이 오케스트라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여정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합쳐지며 '함께 만드는 예술'이 완성된다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관객 사이에는 유연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끈이 하나 있다. 누군가 편견과 좌절로 흔들릴 때마다 그 끈은 몸을 곧추어 균형을 맞춘다. 그렇게 감동이 완성된다.

글. 편집실 | 사진. 박성수(싸우나스튜디오)

Q. 각자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혜지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에서 오케스트라 홍보 업무와 서포터즈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박준영 작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입사했고요, 초청공연과 단원 역량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인사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Q. 한혜지 대리는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 과정을 함께했다고 들었어요.

한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애정이 깊어졌어요. 평소 장애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이 안에서 제 역할이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요즘 단원들이 매주 공연을 연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창단을 준비했던 그 시간이 자연스레 떠올라요.

Q. 박준영 주임은 어떤 계기로 지원했나요?

박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했고, 군 전역 후에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에서 장애예술 및 청년예술 담당자로 근무했어요. 장애예술인들의 공연을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죠. 그러던 중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운영 인력 채용 공고를 봤는데, 전공은 물론 당시 제 직무와 밀접하더군요. 제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Q.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 업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한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태도가 우선입니다. 무지해선 안 되고 편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작은 불편도 큰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분들을 도와야 하는 직원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돌아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디든 그렇겠지만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율하는 소통 능력 또한 필수입니다.

Q.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2024년 12월 창단해 올 4월 첫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박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공연이 마무리돼 다행이라 생각해요. 유료 공연이었는데도 객석점유율이 높아 보람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실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하나하나 어렵게 쌓아 올린 시간이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걸 보며 몽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에게는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무대에 올라 등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멋지게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Q. 일을 하며 힘들었던 순간, 또 그럼에도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요?

한 정답이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가장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신생 오케스트라이다 보니 매뉴얼이나 사례가 많이 부족했어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죠.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긴 호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람을 느낀 순간은 대개 그 힘든 순간과 맞닿아 있어요. 출근하는 게 행복하다는 단원, 연주 일정이 잡히면 설렌다는 단원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완벽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 속 자부심을 전해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오케스트라죠.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박 정기 연습마다 파트별 강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연주력 증진은 물론 소통하는 능력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Q. 박준영 주임은 초청공연의 유치와 기획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박 감사하게도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초청공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예술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공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기도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이하 내용에 의거, 민간 단체의 공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초청공연만을 추진하고 있어요.

Q. 한혜지 대리는 기획공연과 가족 돌봄 프로그램 등을 맡고 있죠. 특별히 중점에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원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고민합니다. 그러자면 단원이 주체가 돼 자신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드러내는 방향의 공연이 좋다고 생각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출처: 경기아트센터)

합니다. 음악이 기술을 넘어 삶의 서사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장애가 공연 참여나 관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배리어프리 환경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대뿐 아니라 안 내와 소통, 객석 구성까지 공연 전 과정에서 접근성과 포용력을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연자와 향유자 모두에게 예술로 연결되는 경험을 전하고 싶어요.

Q. 서포터즈가 오케스트라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7,500여 명의 서포터즈(2025년 6월 기준)가 함께하고 계세요. 정기 후원으로 매달 조용히 마음만 보내는 분들도 있고, 공연 때마다 직접 응원하고 오시거나 자원봉사로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는 분들도 있죠. 저희는 고마운 서포터즈분들에게 공연 준비 과정과 단원들의 근황 등을 뉴스레터나 SNS 채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과는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고요. 저희 목표는 서포터즈와 단원들이 단순히 관객과 연주자라는 관계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동료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죠.

Q. 앞으로 그려나가고 싶은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박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돼서가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의 공연 자체가 궁금해서 찾아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선두에 서는 트렌디하고 젊은 오케스트라로 만들고 싶어요.

한 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길 바랍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길, 그리고 그 과정을 단원들 스스로 자랑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여정을 곁에서 지지하고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음악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단원들이 무대에서 연주할 때 관객들은 누군가의 인생, 혹은 자신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줄 수 있는 감동은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겠죠. 그 감동의 모양이 궁금한 분들은 직접 공연에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남부
수원

6월 - 10월 매주 토요일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북부
의정부

6월 - 10월 매주 일요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흑서기(7월)에는 무더위를 피해 공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주관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GGAC NEWS



2025년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공모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예술단의 프로젝트 단원을 공개 모집했다.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제'는 경기도예술단 중장기 발전 전략 TF팀에서 도출된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재능 있는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제공·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예술단은 2025년 기획공연 구성에 따라 작품 배역, 프로그램별 악기 편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극단 5명, 경기도무용단 7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8명,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8명, 경기팝스앙상블 4명 등 총 32명을 선발했다.

이번 공개 모집은 더 많은 지역 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한 자격 기준을 두지 않았다. 다만 양질의 공연 제작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서류 영상 심사, 2차 실기 및 면접 심사 등 평가 절차를 거쳐 실력 있는 예술인을 선발했다.

선발된 프로젝트 단원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 실적 및 평가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2025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모집

모집기간
4.14.Mon - 4.28.Mon

모집분야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ggac/> 광고 www.ggac.or.kr 문의 031-230-3372~4

2025년 제1차 신규직원 임용

2025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道 통합채용) 최종 합격자 4인이 지난 6월 1일자로 임용돼, 같은 달 16일에 인사 발령을 받았다. 제1차 신규직원 임용자는 다음과 같다.

▲김보람(경영관리 관리7급) / ▲이민주(공연관리 관리7급)
▲엄상화(무대기술(음향) 기술7급) / ▲정주찬(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능5등급)

이들은 6월 4일 임용식에 참여 후 7일간 상반기 신규입사자 대상 온보딩 교육을 받고 인사 발령받았다. 이번 2025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에는 총 275명이 지원한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 101: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했다.



경기아트센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피해 돕기 성금 전달

- 열린무대에서 응원의 마음 담은 기념 촬영 진행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3월 경상북도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하여 총 1,040만 원을 모았다. 성금은 전액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피해 지역 복구 및 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에 앞서 경기아트센터는 4월 23일 오전 임직원이 함께 모여 피해 지역민을 응원하는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경기아트센터 구성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 06 |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첼리스트 이하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시리즈 Vol.1 <소리로 인생을 그리다>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5 전남도립국악단 <국악이음>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6 뮤페라 갈라콘서트 <헌정(獻呈)>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8 	10 <Orchestral Spectacular - 더 나은 세상으로>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1		13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기념 공연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기념 공연 14:00,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15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기념 공연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15:00 경기도청 북부청사 		17	18	19 	21 2025 멜로망스 전국투어 콘서트 (Romance Station)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22 2025 멜로망스 전국투어 콘서트 (Romance Station)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벨리타양상블 <Two Pianos Four Hands> 18: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15:00 경기도청 북부청사 	24 트리오 유니오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 시리즈>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영원의 줄 유산의 빛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28 <영원의 줄 유산의 빛>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 <한여름 밤의 '환희의 송가'>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17:00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	
29 2025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15:00 경기도청 북부청사	30 경기도국단 <창작희곡의 발견- 남독극(바탕:타오르는 삶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티켓 문의 031-230-3441~2(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 상기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남독극(버닝:타오르는 삶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3 경기 발레 페스티벌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5 2025 이승철 콘서트 <오케스트락2>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6 <김현철의 오싹오싹 클래식>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8	9		11 뮤지컬 <발레>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2 뮤지컬 <발레> 14:00,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3 뮤지컬 <발레>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	15	16	17		19 뮤지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 뮤지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1	22	23		25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6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4:00,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
27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8	29	30	31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만나다

<예술과 만남>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풍성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 예술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

깡!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소식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ggac.or.kr

경기아트센터는 다양한 공연과 예술 문화를 선도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지역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예술가의 초상

“행복하기보다는 아프지요.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뜨겁습니다.”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처럼 인자한 웃음으로 취재진을 맞이한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음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뜨겁게 요동쳤다. 그의 마음에서는 마치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 같았다. 함께하는 시간 내내 ‘음악에 대한 그의 진심이 이렇게나 깊구나!’라고 느꼈다. 음악 앞이라면 언제든 하루 종일 재잘거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았달까.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이제 막 ‘봄의 한가운데’에 진입하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음악을 대하는 김성진 예술감독의 마음에는 여전히 꽃이 만발했다. 김성진 예술감독을 보며 ‘예술가란 무엇인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졌다. 시간에 따라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달라지겠지만, ‘예술에 대한 진심’만큼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시간이다.

경기아트센터

예술과 만남 고객만족도 조사

★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QR 코드를 인식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나은 예술과만남을 만듭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www.ggac.or.kr

